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장학월보

2012
제234호(통권453호)

8

- 장학특집 / 학교체육 활성화
- 교육정보 / 이달의 교육기부





2012년도 경남 교육정책

교육 지표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 육성



꿈을 키우는 학교 · 함께하는 교육



정책 방향

1. 소질을 살리는 인재교육
2. 미래를 여는 창의 인성교육
3.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4. 희망주는 교육복지
5. 신뢰받는 교육행정



역점 과제

1. 기초와 기본 교육 충실
2. 도민과 함께하는 독서운동
3. 교육기부운동 활성화
4. 진로 · 직업교육 내실화
5. 국토사랑교육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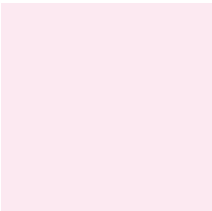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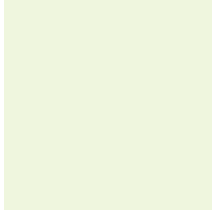
특색과제

노래하는 학교, 운동하는 학교, 책읽는 학교

장학월보

THE GYEONGNAM SUPERVISORY BULLETIN

2012. 8 제234호(통권453호)



02 권두언 04 교육감 동정 05 장학현장 06 장학 칼럼 08 특집 / 학교체육 활성화

- 선생님은 교육전문가입니다 / 고영진
- 인성교육의 해법은 무엇인가? / 김선동
-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지도 방안 / 박윤희
- 건강체력과 활기찬 학교를 만드는 체육활동 활성화 추진 계획 / 김동암
- 리그전 운영을 통한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 장미란
- 스포츠클럽활동으로 '약골(弱骨)'이 '약골(躍骨)'로 거듭나다 / 김형원
- '운동하는 학교' 응원인의 숨통을 틔우다! / 최우람
-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한 '건강 좋아!' '공부도 잘해!' / 박상욱

24 좋은 수업 다지기

- 그림동화를 활용한 언어적 창의성 신장 / 김재희
- 학생과 소통하는 수학수업 아이디어 / 장영수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국어사용능력 신장을 위한 프로젝트 수업 / 하승우

31 교육정보

32 특색교육현장을 찾아서

- 이달의 교육기부
-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기르기 위한 맞춤형 토요학습프로그램 운영 / 박건춘
- 음악·운동·독서로 가꾸는 건강한 몸과 마음 / 정영혜

38 명품학교, 명품교육

- '꿈두드림(DoDream)'별방교육으로 행복up 학교 만들기 / 배한권
- 친환경·학생중심체험교육으로 꿈을 키우는 학교 / 정연보
- 나의 꿈을 찾아 떠나는 여행-「Book積 Book 積」책 사랑 축제 / 전경희
- 교육기부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으로 꿈 나누기, 생각 더하기 / 김경원
- 바벨 위에 꽃핀 나의 꿈 / 정수용
- 파이팅 무중 Dream5 프로젝트 / 이순자
- 꿈·열정 소통하는 우리 / 김은희

58 참여마당

- 교 원 - 거울속의 나 / 정일권
- 학부모 - 화차 / 권정숙
- 학 생 - 수학여행을 다녀와서 / 이병희

63 향기나는 서가

65 지상갤러리

- 마당을 나온 임궫 / 권성희
- 나를 키우는 말 / 김선애

▶ 표지사진 - 류모세(호계초등학교)

장학월보는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 전문지로서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소망합니다.

• 9월호 모집 기간 : 2012년 8월 18일까지 • 모집내용 : 이색교육현장, 참여마당(시, 수필, 독후감 등), 교육미담 등 • 분량 : A4 1~4매 내의
※ 보내실 곳 : 641-719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초등장학담당) 장학월보 담당자 앞 <<http://lms.gnedu.net>>-장학월보커뮤니티

2012년 8월 1일 발행

• 발행인 : 경상남도교육감 고영진 • 총괄 :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 기획 : 초등장학담당장학관 이국식 • 편집주간 : 교육과정과 장학사 박정화
• 편집위원 : 한영자, 박준일, 이왕민, 윤수영, 김민주 • 인쇄 : 문성인쇄사 (055) 282-9922



선생님은 교육전문가입니다

어이없는 아름이의 죽음에 온 국민이 놀라고 가슴아파했습니다. 지켜주지 못한 어른들을 참으로 부끄럽게도 만들었습니다. 실종 소식을 처음 듣던 날부터 지금까지 마음 한 구석에 자리한 조바심과 안쓰러움이 가시질 않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에 묻힌 아름이를 교육가족과 도민들의 가슴으로도 함께 안아 주기를 당부 드리며 아름이의 명복을 빕니다.

태양이 뜨겁습니다. 낮 동안의 폭염과 이어지는 열대야가 살아 숨 쉬는 모두를 힘겹게 하는 계절입니다.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면서 盛夏의 8월이 소중한 충전의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새 1학기를 마쳤습니다. 2012학년도 1학기는 주5일 수업의 전면 실시, 학교폭력 예방대책 강화 등 사회 환경의 변화가 요구하는 교육현장의 역할 증가로 학교가 더 바빠진 시간이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 그리고 학교 내외에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분의 수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통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은 자신을 ‘바닷가에서 놀고 있는 어린 소년’ 같다고 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좀 더 매끈한 자갈, 좀 더 예쁜 조개껍질을 발견하는 데 온통 정신이 팔린 소년, 그의 눈 앞에는 아직 밝혀내지 못한 거대한 진실의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뉴턴은 진정으로 자신의 일을 즐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우주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몰두하는 자신을 ‘예쁜 조개껍질을 발견하는 데 온통 정신이 팔린 소년’에 비유했습니다.¹⁾ 아이작 뉴턴을 통해 즐거운 일에 대한 몰입의 경지를 생각해봅니다.

“논어” 용어편에서는 “알기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고 공자도 말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고 즐겨야 하는 것이 곧 진리인 듯 합니다. 이 진리가 교육의 현장에서 학생들에게는 진로교육의 방향이 되고 선생님에게는 전문성을 심화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일에 그 자체로 즐거움을 느끼고 열정을 쏟을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원하는 ‘성취’는 결코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교직에서 열정을 통해 얻어지는 선생님의 행복이나 만족감은 학생들에게 지식 이상의 가르침입니다. 선생님은 교육전문가입니다. 교육에 대한 공부와 연구를 대학에서부터 교육현장으로 무단 없이 이어감으로써 적어도 교육에 서만큼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바로 선생님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도 교단의 선생님들에게 전문직이라는 권위를 부여하는 일에 많이 인색합니다. 학교가 결코 교과서에 있는 지식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지식 너머의 사람됨을 가르치는 일에 있음을 보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우리 선생님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여름방학도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방학 중에도 휴가보다는 각종 연수를 통해 연찬을 도모하는 선생님들의 노력에 대해 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이 스스로 열정을 갖고 참여하는 연수를 통해 전문성이 더해지고 이는 곧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하면 가슴 든든해집니다.

여름 날의 피약별이 가을의 결실을 위한 과정이기에 우리는 참고 이겨냅니다. 2012년 1학기 동안의 안정적인 경남교육은 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의 열정과 성원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충전을 위한 휴식 또한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준비입니다. 8월이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에게 재도약과 준비를 위한 휴식과 충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2. 8.

경상남도교육감





01-



02-



04-



03-



05-

- 01 제2회 대학 진학 박람회 참석
- 02 거제 밀양 학생들과 경남FC 축구 관람
- 03 미국 페어팩스 교육청 관계자 접견
- 04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사천한국항공 견학
- 05 호주 인턴십 학생과 화상 통화
- 06 EBS 꿈을 키우는 공부방 지원금 수여



06-



07—



08—



10—



09—



11—

- 07 함안교육지원청 - 위센터 꿈키움교실 연계 통영요트학교
- 08 하동교육지원청 - 친구사랑캠페인
- 09 경남과학교육원 - 2012. 초등학교 과학창의적 교수·학습 직무연수
- 10 경남교육연수원 - 스마트 연수시스템 구축 시연회
- 11 경상남도유아체험교육원 - 토요가족체험
- 12 김해도서관 - 2012. 청소년 인문학 읽기



12—

인성교육의 해법은 무엇인가?



김 선 동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과장

오늘날 교육경쟁력을 측정하는 국제공인 지표인 PISA(국제학업성취도 비교연구)의 2009년 평가에서 한국 학생은 OECD 34개 회원국 중 읽기 1위, 수학 1위, 과학 3위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IEA(국제교육협회)가 세계 36개국의 중학교 2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제 시민의식 교육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한국 학생들의 사회역량지표는 35위, 사회적 관계지향성은 36위를 기록하였다. 즉 교과 영역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 인성영역에서는 세계 꼴찌인 셈이다.

성과지향적 지식위주의 교육에 치중한 나머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인성교육을 소홀히 한 우리교육의 결과이다. 예의나 예절은 사라져가고 인성교육은 그저 구호로 남겨진 채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 성적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서울대를 비롯한 일류대학의 합격생 숫자가 학교교육 성과로 인정되는 우리 사회의 교육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문화에서 비롯된 당연한 결과라 생각된다.

인성이란 ‘사람다운 사람의 품성’으로 사람 됨됨이를 이르는 말이며, 바른 인성함양은 학교교육의 본질이요, 핵심으로 학교교육이 추구하는 최우선 지향점이다. 그러나 지식위주의 교육으로 인성교육이나 정서함양을 위한 교육활동은 도외시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적위주의 풍토 개선을 위하여 대학입학전형에서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었다. 그럼에도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소홀히 해도 좋을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부끄러운 우리 교육의 단면이다.

지난해 학생을 자살에 이르게 한 학교폭력이 지식과 경쟁만을 강조해온 우리 교육에서 비롯되었다는 자성과 함께 인성교육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요구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팽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모든 교육활동을 통해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는 방침과 함께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사실 그동안 우리교육 현장에서 인성교육의 강화가 시행 방안이 없어서 미흡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학생자살, 학교폭력, 청소년 범죄 등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위기가 인성교육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상황인식에서 이루어진 교육과정 개정은 필수불가결한 선택이었다. 인성교육 실현을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

첫째, 선생님이 인성교육의 해법이다. 인성교육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다. 선생님의 일거수일투족은 학생들의 영혼을 일깨워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선생님은 수업시간의 교육활동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 선생님이 평소 무심코 하는 말과 행동 또한 상상한 것보다 학생들에게 훨씬 강력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둘째, 인성교육은 추가적인 교과교육 형태가 아니라 통합적 방법으로 모든 과목에 녹아들어가 내면화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창의·인성교육의 취지는 창의력교육과 인성교육의 분리가 아니라 모든 교과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교과에서 이루고자 하는 결과만이 아닌 과정과 태도를 가르치는 인성교육은 교과적 접근이 아니라 인간적 교감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을 때 학생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몸으로 가르치니 따르고, 입으로 가르치니 거부하더라’는 말처럼 신뢰에 바탕을 둔 래포 형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학생들과 개별적 접촉을 하여도 대화는 활기를 띠지 않는다. 선생님과 아이들과의 허심탄회한 의사소통 그것만으로도 인성교육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일과시간을 마친 후 또는 주말 등을 활용한 방과 후 교육활동에 인성함양 프로그램이 적극 운용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방과 후 교육활동은 국, 영, 수 중심으로 교과교육 보충학습이 실시되고 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1명이면 독서활동, 2명이면 봉사활동, 3명 이상이면 스포츠활동’ 등 다양한 유형의 체험활동 프로그램과 남을 배려하며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예절교육 프로그램, 더불어 함께 하는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우리교육은 지금 기로에 서 있다. 인성교육의 실패를 안고 학교교육은 성공할 수 없다. 학교교육에서 추구하여야 하는 덕목에서 우선되어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인성교육 구현을 위하여 교육 CEO로서 학교장의 의지와 선생님들의 작은 실천, 여기에 인성교육 해법이 있다.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지도 방안



박 윤 혁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교육연구사

1. 성격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학교 정규 교육과정의 일환인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이루어지는 클럽단위 스포츠 활동이다.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스포츠 활동의 체험을 통해 올바른 인성 요소를 내면화하고 이를 학교생활에 직접 적용하는 사람이다. 이때, 바람직한 인성의 요소는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및 단위 학교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고려하되, 학기별·학년별 위계를 고려하여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목표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목표는 학생들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스포츠에 내재된 정서적·도덕적인 요소를 학습하고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체득하며, 나아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도록 하는 데 있다.

3. 내용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종목은 학생의 희망을 반영하여 학교가 정하되, 다양한 종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운영한다. 이때 학생, 학교, 지역 등의 특성을 고려한 바람직한 인성의 요소가 운동 종목을 통해 학습될 수 있도록 내용을 선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종목의 선정은 학생의 희망을 반영하여 학교가 정하되,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한다.

나.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종목은 한 학기 또는 한 학년을 기준으로 선정하며,

사전(이전 학기 말)에 학생의 희망을 수렴하여 학기 초부터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편성·운영 될 수 있도록 한다.

다. 학교스포츠클럽 전담 교사 및 스포츠강사는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종목 선정과 함께 중학교 3년(6학기)에 걸쳐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바람직한 인성의 요소를 위계적으로 선정하고 운영한다.

라. 학생들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학습할 바람직한 인성의 요소는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및 단위 학교에서 추구하는 인간상(목표)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및 체육교육 관련 선행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거나, 학교 자체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선정 할 수 있다.

4. 교수·학습의 방향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스포츠강습과 (변형)게임의 형태를 병행하되, 학교의 시설 및 여건을 감안하여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 및 수업모형 등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가. 스포츠강습 시 유의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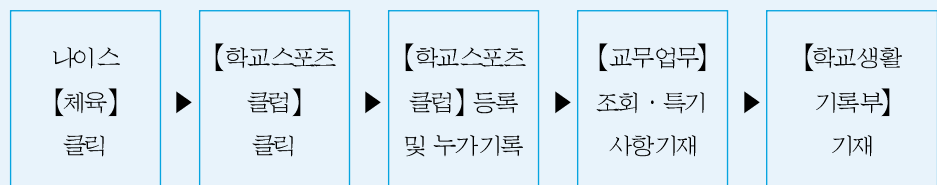
학생의 흥미, 운동 기능, 체력, 성차 등을 고려하며, 다양한 과제 난이도 또는 과제 유형이 포함된 강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학습 활동을 조직하고, 수업 중 소외되는 학생 없이 모든 학생이 적극적으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변형)게임 전략 활용 시 유의점

변형된 게임은 그 종목의 핵심적 측면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기능 발달이 단계적으로 연습 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능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변형되어야 한다. 변형게임의 운영을 위해서는 변형게임 선정의 기준, 게임 변형 시 고려사항, 변형게임의 기본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5. 평가

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실적 기록 및 기재 절차



- 1) 2009 개정 교육과정 적용 학년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실적은 【체육】-【학교스포츠클럽】란에 누가 기록하고, 교무업무 「창의적 체험활동상황-동아리활동」내에 별도로 학교스포츠클럽 특기사항을 기재하며, 활동 시간은 동아리활동 시간에 자동 합산 기재된다.
- 2) 2007년 개정교육과정과 제7차 교육과정 적용 학년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실적은 【체육】-【학교스포츠클럽】란에 누가 기록하고, 교무업무 「특별활동상황-계발활동」내에 별도로 학교스포츠클럽 특기사항을 기재하며, 활동 시간은 계발활동 시간과 별도로 자동 기재된다.

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 예시

- 1) 2009 개정 교육과정 적용 학년 「창의적 체험활동상황-동아리활동」기재 방법

【중·고등학교 변경전】

* 중·고등학교용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2011.4.11, P.35)

학 년	창의적체험활동상황		
	영역	시간	특기사항
1	동아리 활동	34	(영어회화반) 영어에 관심이 많고 소질이 있어 영어표현에 자신이 있고, 특히 말하기 부분에 탁월한 능력을 보임. 영자신문반이 참여한 ○○교육청과 △△문화원이 연계 운영하는 국제수업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우수한 활동을 하였으며, 국제 사회의 빈곤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됨. (축구발리크클럽) 클럽의 주장으로,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잘하는 미드필더이자 멀티플레이어로 3월~6월, 9월~11월 주 2회 정기적으로 활동하였고, 학교 간 경기에 총 6회 참여 및 ○○교육지원청대회에 학교대표로 출전하는 등 162시간 활동함

【중·고등학교 변경후】

학 년	창의적체험활동상황		
	영역	시간	특기사항
1	동아리 활동	196	(영어회화반) 영어에 관심이 많고 소질이 있어 영어표현에 자신이 있고, 특히 말하기 부분에 탁월한 능력을 보임. 영자신문반이 참여한 ○○교육청과 △△문화원이 연계 운영하는 국제수업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우수한 활동을 하였으며, 국제 사회의 빈곤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됨. (축구발리크클럽) 클럽의 주장으로,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잘하는 미드필더이자 멀티플레이어로 3월~6월, 9월~11월 주 2회 정기적으로 활동하였고, 학교 간 경기에 총 6회 참여 및 ○○교육지원청대회에 학교대표로 출전하는 등 162시간 활동함

2) 2007년 개정 교육과정 · 제7차 교육과정 적용 학년 「특별활동상황-계발활동」기재 방법

【중·고등학교 변경전】

* 중·고등학교용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2010.3, P.47)

학 년	특별활동상황		
	영역	시간	특기사항
1	계발 활동	34	(영어회화반) 영어에 관심이 많고 소질이 있어 영어표현에 자신이 있고, 특히 말하기 부분에 탁월한 능력을 보임. 영자신문반이 참여한 ○○ 교육청과 △△문화원이 연계 운영하는 국제수업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우수한 활동을 하였으며, 국제 사회의 빈곤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됨.

【중·고등학교 변경후】

학 년	특별활동상황		
	영역	시간	특기사항
1	계발 활동	34 162	(영어회화반) 영어에 관심이 많고 소질이 있어 영어표현에 자신이 있고, 특히 말하기 부분에 탁월한 능력을 보임. 영자신문반이 참여한 ○○ 교육청과 △△문화원이 연계 운영하는 국제수업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우수한 활동을 하였으며, 국제 사회의 빈곤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됨. (축구발리킥클럽) 클럽의 주장으로,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잘하는 미드 필더이자 멀티플레이어로 3월~6월, 9월~11월 주 2회 정기적으로 활동하였고, 학교 간 경기에 총 6회 참여 및 ○○교육지원청대회에 학교대표로 출전하는 등 162시간 활동함



건강체력과 활기찬 학교를 만드는 체육활동 활성화 추진 계획



김 동 압

경상남도교육청 체육건강과 장학사

운동하면 몸과 마음이 튼튼해진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운동하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연구결과도 국내외에서 발표되었다. KIST 신경과학센터 김종현 박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동을 하면 뇌 속에 공급되는 혈액의 양이 증가되어서 혈액속에 포함된 많은 성장인자들이 뇌신경 줄기세포의 발생과 성장을 촉진시키고, 뇌신경 세포의 분화가 30%가량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기억력과 학습속도가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미국 조지아 의대 연구진의 연구결과도 운동이 학습과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 활성화 물질(BDNF)의 분비를 촉진시켜 뇌세포 성장을 도울뿐 아니라 산소공급량도 늘어 두뇌활동을 극대화시킨다고 말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운동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되고 학생들의 체육활동이 줄어들었던 과거를 반성하면서 새롭게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통하여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은 물론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되고자 운동하는 학교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실천 방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1. 1110달리기

0 교시 체육 활동의 가장 좋은 방법은 달리기이다. 등굣길이 좁고 학교버스와 승용차를 이용하여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운동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하루 한번 10분 달리기를 통하여 학생들의 기초체력과 운동능력 향상과 함께 인내심과 극기심을 기르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다.

2011년부터 시작된 1110달리기는 학교의 여건에 맞는 특색 있는 달리기 코스를 만들어서 다양한 방법의 달리기(걷기)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의 성취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모든 일들이 그렇지만 운동습관은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특히 가볍게 달리기 운동을 하는 것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특히 유익한 장점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침마다 가벼운 마음으로 자신의 능력과 수준에 맞추어 즐겁게 달리면 되는 것이다.

지난 2월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한 일본 후쿠오카지방의 소학교는 31년간 꾸준히 학생들에게 등교하자마자 빈바지 차림에 맨발로 운동장을 달리도록 교육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맨발달리기가 체력증강뿐 아니라 학습능력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도내의 많은 초등학교에서도 아침 일찍 등교하면서 자발적으로 30분 정도 운동장을 걷거나 달리기를 하도록 교육을 시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등교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이야기하고 즐기면서 걷거나 달리기를 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매일 운동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에게는 뛰어난 운동 효과도 제공하고 집중력과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0교시 달리기’ 운동을 적극 추천하는 바이다.

2. 1080 건강운동

‘1080건강운동’은 10대의 체력을 80대까지라는 슬로건으로 줄넘기를 생활화하여 건강하고 건전한 학교생활은 물론 나아가 평생 스포츠로 삼아 체력을 향상시키자는 운동이다. 학생들의 지나친 학습부담과 TV시청, 온라인 게임 등으로 운동량이 부족하여 비만이 증가하고 체력은 저하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가장 쉽게 운동할 수 있는 줄넘기를 가지고 다양한 뽀뽀기 방법을 학습하여 줄넘기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줄넘기 달인’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학생 스스로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내 건강 줄넘기 대회를 실시하여 성취감을 더욱 높인다. 또한 음악줄넘기의 보급을 통하여 여러 명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협동정신을 배우고 인성의 발달과 단결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초등학교 줄넘기 달인 목표(4~6학년 대상)

구분	종목					비고
	양발모아 뛰기	구보로 뛰기	가위바위보 뛰기	엇걸었다 풀어뛰기	2단 뛰기	
달인(도전목표)	400회	80회	64회	20회	20회	특급

○ 중·고등학교 줄넘기 달인 목표

구분 \ 성별	남	여	비고
달인(도전목표)	2단 뛰기 50회	2단 뛰기 20회	

3.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재미있는 체육수업, 즐거운 학교, 함께하는 스포츠’라는 슬로건을 표방하며 ‘모든 학생을 위한 스포츠’를 목표로 학교 스포츠클럽의 활성화와 스포츠리그의 활성화를 추진해온 교과부의 정책에 따라 소규모 동아리 활동으로 시작된 학교 스포츠클럽은 이제 전교생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스포츠 동아리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토요 스포츠데이와 방과후 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2년 학교 스포츠클럽 등록률을 50%로 확대하였으나 우리도에서는 이미 많은 학교가 목표에 도달하였으며 학생들의 참여도 향상을 위하여 점심시간을 80분으로 늘려 급식시간의 여유를 갖는 것은 물론 점심시간을 활용한 교내 스포츠리그를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이 활기차고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

학생들의 스포츠클럽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와 지역교육청별 스포츠클럽 리그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지원을 늘렸고 스포츠클럽도 대회의 종목도 확대하였으며, 전국대회 출전종목도 30개로 늘려 학생들의 다양한 스포츠클럽 참여를 유도하고 관심을 높여가기 위해 전국대회 출전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가족간의 화합과 행복을 가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시군 교육청별로 특색 있는 행사로 진행되고 있는 온가족 Sports Festival과 학교체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체육교육과정의 정상운영과 전교생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실정에 맞게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학교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학교체육활성화 우수학교 사업도 학생들의 체력 향상과 건강증진 및 즐겁고 건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푸른 초원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는 루우 떼가 풀 향기를 쫓아 강을 건너는 모습을 생각하며 체육이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는 지금 체육의 향기가 온 학교로 퍼져 체육의 르네상스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한 젊은 체육교사의 ‘운동을 잘하는 학생은 적어도, 운동을 싫어하는 학생은 없도록 하겠다’는 꿈이 실현되길 기대해 본다.

리그전 운영을 통한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장 미 란

창녕교육지원청 장학사

1. 왜 학교스포츠클럽인가?

올해부터 주5일수업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바람직한 인성함양을 위해 학교 스포츠클럽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우리교육지원청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운동하는 학교 활성화’ 방안으로 학교 간 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게임중독, 학업 스트레스 등에서 벗어나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건강과 체력 향상, 배려와 나눔, 협동심 등을 배양하여 활기찬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주말을 이용한 리그전 형식의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를 운영하고 있다.

2. 리그전 형식의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전은 올해 처음 실시하면서 우선 관내 10개 중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축구, 농구, 티볼, 배드민턴, 줄넘기 등 5개 종목에 걸쳐 6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을 이용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 장소는 학생들의 이동 거리와 시간 등을 고려하여 2개 종목은 창녕 중학교에서, 3개 종목은 영산중학교에서 분산 실시하고 있다. 리그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5개 종목별 주무학교와 담당자, 경기지원팀을 구성하여 경기 운영 및 결과를 관리하게 하고 경기용품 등의 소요경비는 교육지원청에서 적극 지원하여 리그전 형식의 학교스포츠클럽대회가 활성화되고 있다. 내년에는 초등학교까지 참여 범위를 넓히고 참여 종목도 더욱 확대할 것이며 학교급별 규모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운영상의 묘를 살리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더욱 창의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3. 리그전 형식의 학교스포츠클럽대회 활성화 전략

가.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참여환경의 개선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스포츠클럽 주말리그는 우선 5개 종목으로 시작했지만 연중 다양한 종목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들의 지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 참가의 만족도는 주말리그 운영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과 프로그램 구성 내용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는 시설과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프로그램 내용의 다양화와 프로그램 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하며 모든

학생들이 참여기회를 균등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참여 환경의 복지적 측면에서 참가자의 요구 수준에 부합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체육관련 단체 및 기관, 학교와의 유기적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나. 학교체육과의 연계 운영방안 강구

그동안 학교체육은 입시위주의 교육정책, 엘리트 체육정책 등으로 청소년들의 체육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한 실정이다.

주5일수업제 시행으로 학교에서는 주말을 통하여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다. 토요일과 후 교실과 스포츠테이 운영 등으로 학생들을 위한 주말 스포츠 교실, 건강관리, 주말 리그 등을 개최함으로써 청소년들은 보다 다양한 여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주말리그는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해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스포츠클럽을 만들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다. 지도자의 리더십 강화 및 전담인력 확보

학교스포츠클럽 주말리그가 발전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학교 지도자의 역량 강화와 이들의 폭 넓은 리더십이 요구된다.

따라서 바람직한 주말리그 지도자가 되려면 운동기능 지도와 대회 운영 이외에 지도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스포츠클럽 담당교사를 중심으로 팀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어 무리가 없지만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지도자는 운동 기능만을 전수하는 단순한 기능인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체육에 관한 이론적 지식과 운동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지식, 그리고 현장경험 지식을 골고루 갖추고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스포츠클럽 주말리그 지도자에 대한 교육 훈련을 강화하는 전략이 요구되며 학교스포츠클럽 주말리그 지도자들의 끊임없는 자기개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 학교스포츠클럽 주말리그가 활성화되면 전담지도자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말리그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인근대학의 체육 관련 학과 학생, 실기교사, 경기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등은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체육지도자로 현장경험과 종목별 지식을 골고루 갖추고 있어 지식기부가 이루어진다면 스포츠클럽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4. 학교스포츠클럽대회가 나아갈 길

관내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처음 리그전 형식의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있었다. 학교 규모와 실정이 모두 다르고 학교마다 사정이 있어서 종목과 장소를 선정하고 전담인력을 구성하는데 애로를 겪었지만 학교별 담당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봉사로 비교적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어 정말 다행스럽다. 초등학교의 경우 올해 1회성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운영하였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을 선정하고 학교급 별 규모나 학교 간 이동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가까이 있는 학교나 규모가 비슷한 학교끼리 군을 묶어 시행하는 등 연중, 주말을 이용한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전 운영을 활성화하면 많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한 바람직한 인성 함양 및 건강 증진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스포츠클럽활동으로 '약골(弱骨)'이 '약골(躍步)'로 거듭나다.



김 형 원

진주 주악초등학교 교사

1.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본교는 진주시 주악동에 소재한 개교 10년차를 맞이한 학교로 39학급, 전교생 1100여 명의 진주에서는 규모가 큰 편인 학교이다. 주변 환경은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진 곳으로 주택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학구열이 상당히 높고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열의도 높은 학교이다.

위와 같은 물리적, 인적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인 만큼 운동과 스포츠,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욕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학업에 치중되어 있어 체력은 크나 다소 허약하고 심약한 학생들이 많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 체육 교육의 방향은 학생들이 품고 있는 움직임과 체육에 대한 욕구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다. 따라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기회의 제공 방법 중에서도 적합하고 적절한 방법이라는 판단 하에 본교에서는 2012학년도를 맞이하여 전년도 보다 더 다져진 프로그램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

2.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학교스포츠클럽이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걸쳐 조직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었다.

첫째, 학기 초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학교스포츠클럽을 개설하였다.

둘째,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도교사를 배정한 다음 협의를 통해 활동을 위한 장소 및 시간을 정하였다.

셋째, 개설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한 자세한 안내문을 작성하여 희망을 조사한 결과, 특정한 종목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개개인의 재능과 적성을 고려하여 재배정하였다.

3. 이렇게 운영하였습니다

2012학년도 학교스포츠클럽의 알찬 운영을 준비하며 전년도에 운영하였던 남·여 배구, 여자 탁구, 남자 축구, 줄넘기, 달리기 외에 씨름, 남·여 배드민턴, 남자 탁구, 여자 축구, 남자 농구, 음악줄넘기, 남·여 피구를 신설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스포츠 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 지도력을 갖춘 본교 지도교사들의 헌신적인 봉사가 있었기에 준비와 운영이 순조롭게 될 수 있었다.

종 목	활 동 시 간	학생수	지도교사
배 구	화, 목 8:00~8:50, 12:40~13:20 토 10:00~11:00	23명	이형호
농 구	월, 수, 금 8:00~8:50 화, 목 12:40~13:20 토 11:00~12:00	12명	김형원
배드민턴	월, 수, 금 12:40~13:20, 토 9:00~10:00	14명	이강규
축구(남)	월, 수, 금 8:00~8:50, 토 11:00~12:00	18명	공맹진
축구(여)	월, 수, 금 8:00~8:50, 토 11:00~12:00	18명	김형원
씨 림	화, 목 12:40~13:20	6명	이승훈
피구(남)	화, 목 8:00~8:50 월, 수, 금 12:40~13:20 토 13:00~14:00	23명	허창훈
피구(여)	화, 목 8:00~8:50 월, 수, 금 12:40~13:20 토 13:00~14:00	20명	허창훈
음악줄넘기	평일 12:40~13:20	10명	이지원
탁 구	월, 수, 금 8:00~8:50 화, 목 12:40~13:20	23명	박치우
반별달리기(2,3학년)	2학년 : 수 8:40~9:00 3학년 : 화, 목 8:40~9:00	373명	각반 담임
반별줄넘기(4~6학년)	수 12:40~13:20	594명	각반 담임



배구부



줄넘기부



여자축구부



달리기부



여자탁구부



남자축구부

4. 이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한 결과 다양한 효과를 보았다.

- ①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기초체력이 향상되어 PAPS(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 5, 6학년 학생 중 4, 5등급 없이 모든 학생이 1~3등급을 받았다.
- ② 체육문화가 확산되어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분위기가 활기차고 밝아졌으며, 친구들 간의 사소한 갈등이나 폭력이 감소되어 교우관계가 원만해졌다.
- ③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익힌 실력을 발휘하여 2012 경남 교육감배 스포츠클럽대회에 진주시 대표로 여자탁구, 남자농구, 남·여피구가 진출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 ④ 운동을 통해 집중력이 높아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향상되었다.

5. 이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면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 및 개선사항이 발견되었다.

- ◆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가 힘들었다. 특히, 학구열이 높아 운동을 시키지 않으려는 분위기와 다양한 방과후학교 참여 시간이 겹쳐 운영의 어려움이 있었다.
- ◆ 종목별 지도 교사의 역량이 다소 부족하였다. 다양한 특기를 가진 초등학교 교사들이지만 특정 종목의 경우, 전문적인 지도력을 요구하므로 지도에 어려움이 있었다.
- ◆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종목을 운영하고자 하니 큰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부족함을 느꼈다.
- ◆ 종목별 지도를 할 장소, 시설이 부족하였다. 큰 규모에 비하여 좁은 운동장, 체육관 부족으로 인하여 스포츠클럽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려워 시기를 나누어 운영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이 실력향상과 지속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어 안타까웠다.
- ◆ 다양한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고자 하나 많은 학생들의 요구를 다 반영할 수 없어 학생들의 불만이 다소 있었다.

6. ‘약골(弱骨)’이 ‘약골(躍步)’로 거듭나다

끝으로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며, 다소 힘든 점들도 많았지만 학생들이 흘리는 땀방울만큼 학생들의 체력 향상과 스트레스 해소가 이루어졌고 지도 교사들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좋았다.

본교의 건너편에는 약골마을이라는 곳이 있다. 약골이라고 하면 흔히 약골(弱骨)을 떠올리기 쉽지만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하여 진주 주약초등학교 학생들은 약골(弱骨)이 아닌 약골(躍步, 힘을 골:步 - 뛰어오르며 목표를 향해 힘을 줄 아는)로 거듭났다.

‘운동하는 학교’ 용원인의 숨통을 틔우다!



최 우 램
창원 용원중학교 교사

1. 준비하며

본교에서는 ‘YW(용원)맞춤체력 인증제’,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중점 운영 과제로 ‘운동하는 학교’를 운영하기로 하고 용원 교육가족의 뜻을 모으고 제반 여건을 조성하였다.

2. 운영 과제 1 : YW(용원)맞춤체력 인증제

YW맞춤체력인증제는 ‘1110 달리기’와 ‘1080 건강운동’ 두 프로그램을 통한 본교 학생들의 건강체력 향상과 스스로 즐겁게 운동에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구안되었다.

YW맞춤체력인증제					
형태	‘1110달리기’			‘1080 건강운동’	
내용	수준별 왕복오래달리기			줄넘기 2단 뛰기	
실시방법	점심식사 대기시간, 체육 수업시간 준비운동			체육수업 시간 준비운동	
월1회	‘건강 체력 증진의 날(각반 매월 마지막 체육시간)’ 운영 → 개인별 기록 향상 카드에 누가 기록하여 지속 관리 / 체육과 수행평가 반영(학기별)				
연1회	‘My Health Dream Day(건강체력 도달률 측정의 날)’ 운영 : 2012. 10. 26 → 도달률 최우수반과 YW맞춤체력인증제 우수 학생 선발 후 학교장상 시상				
평가 기준	비고	왕복오래달리기	도달률 기준	줄넘기 2단뛰기	비고
	학교 자체기준	55회	남학생	30회	도교육청 기준
		32회	여학생	10회	
※ 1110 달리기와 1080 건강운동 각각의 등급을 통해 YW맞춤체력인증제 등급 부여					

3. 운영 과제 2 :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학교스포츠클럽 종목을 7개 종목으로 다양화하였고 아침시간 활동, 점심시간을 통한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짹짹리그전’, 방과 후의 활동 등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학교스포츠클럽이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종목	클럽수	활동(연습)시간		짹짹리그전	장소
축구	3	화·목	07:35~08:20	월·수·금 점심시간	운동장
		토	09:00~10:30		
티볼	3	월·수·금	07:35~08:20	화·목 점심시간	운동장
		토	10:40~12:10		
농구	4	월·수·금	07:35~08:20	월·수·금 점심시간	체육관
		토	09:00~10:30		
탁구	2	화·목	16:30~17:15		체육관
		토	10:40~12:10		
넷볼	3	월·수·금	16:30~17:15	화·목 점심시간	체육장
배구	3	화·목	16:30~17:15	매일 점심시간	체육장
배드민턴	1	화·목	07:35~08:20		체육관

4. 운영 결과

가. YW맞춤형체력 인증제 도달률(각반 매월 마지막 체육시간 이용 측정 결과)

항목	내 용	3월	4월	5월	6월	7월
측정학생수	1110 달리기	581명	556명	570명	570명	552명
	1080 건강운동	559명	559명	567명	566명	553명
도달학생수	1110 달리기	154명	202명	255명	262명	289명
	1080 건강운동	233명	281명	293명	315명	335명
도달률	1110 달리기	26.51%	36.33%	44.74%	45.96%	52.36%
	1080 건강운동	41.68%	50.27%	51.68%	55.65%	60.58%

나. 학교스포츠클럽 만족도(설문조사)

	N=192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대하여 만족한다.		1	11	27	84	68
		0.5%	5.7%	14.1%	43.8%	35.4%
2.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학교생활의 활력소가 된다.		1	8	42	77	61
		0.5%	4.2%	21.9%	40.1%	31.8%

5. 맺으며

‘운동하는 학교’ 운영은 실적에서 보듯이 운동으로 튼튼한 체력을 지닌 건강한 학생을 길러 내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학기에도 지속적인 ‘운동하는 학교’ 운영을 통해 체력면에서 더 크게 승통을 띄우고, 학교 생활면에서도 활력소가 되어 학습부담 등으로부터 벗어나 승통을 띄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해본다.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한 ‘건강 좋아!’ ‘공부도 잘해!’



박 상 욱

고성중앙고등학교 교사

1. 들어가기

공룡세계엑스포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내 고장 고성에 위치한 우리 학교는 저 멀리 바다가 보이고 주변은 갈대밭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자연환경이 매우 좋다. 아울러 학생들의 바른 품성과 맞춤식 진학지도,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는 운동하는 학교이기에 인근 중학교에서 가장 선호하는 명품학교로 발돋움하였다.

아침의 적막을 깨며 하루 일과를 아침 구보로 시작하는 기숙사생들의 함성소리로 교정(校庭)에 생동감이 넘쳐흐른다. 학교에 등교하면서 학생들은 밝은 미소로 “반갑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어제 스포츠클럽이야기로 이야기꽃을 피운다. 오늘 있을 체육수업과 스포츠클럽시간을 기대하면서 하루 일과가 이렇게 시작된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왜 운동을 좋아하는 것일까?

2. 우리에게 운동이 왜 필요한가?

- 좋아하는 스포츠 1인 1기는 스트레스 해소 1호이자 평생스포츠 운동임을 강조
- 팜스 실시 후 학생들에게 개인별 면담을 통하여 운동의 필요성 부여
- 운동이 뇌의 활성화를 통하여 집중력향상으로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홍보 교육
- 건강한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운동의 필요성 교육

3. 학생들이 운동을 좋아 하는 이유

학생들에게 “너는 왜 운동하니?” 하고 물어보면 “저는요, 운동하는 순간이 가장 행복해요”, 어떤 학생은 “운동하면서 친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아요”, 또 다른 학생은 “땀을 한번 흘리고

나면 공부가 너무 잘 돼요”, 다른 친구는 “스트레스가 풀려요”, 등 운동의 필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잘 표현한다. 이런 학생들에게 진학이라는 명목 아래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혀만 두는 것은 건강한 우리 아이들을 서서히 병들어가게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실태를 잘 알고 계시는 교장선생님은 늘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하며 운동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전 학년에 주당 2시간씩 체육수업을 배정하고 있다.

4. 좋아하는 스포츠클럽에 스스로 참여하기

스포츠클럽은 런치스포츠데이(12:50~13:15), 이브닝 스포츠데이(17:50~18:25)(희망자), 정규교과시간 2시간 중 1시간은 스포츠클럽 병행 실시(전교생 참가), 창의적 체험 및 계발활동과 연계한 스포츠클럽(희망자), 매주 토요 스포츠데이 스포츠클럽(희망자)이 있으며 학생들이 스스로가 좋아하는 스포츠 클럽에 참여한다.

5. 마무리 - 스스로 참여하는 스포츠클럽의 결실

학생들에게 좋아하는 스포츠 1인 1기가 스트레스 해소 1호이자 평생스포츠운동으로 건강을 담보로 한 건강연금저축에 가입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스포츠클럽활동을 통한 신체활동의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다. 신체활동은 세라토닌과 신경세포전달물질을 분비하여 뇌세포를 생성하게 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켜준다. 따라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하며 이는 기초체력과 건강증진으로 이어져 학력향상에 더 많은 도움이 된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스포츠클럽활동을 통하여 명예스포츠지도자 자격증을 획득하고 스포츠클럽 활동과 관련한 리더십이나 학교장 표창은 대학입학사정관제 스포츠클럽 리더십 분야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되므로 진학과 관련된 분야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서 친구와 함께하는 스포츠클럽은 다 함께 웃고 땀 흘리고 즐기다 보면, 서로 간에 친근한 소통이 이루어져 자연스럽게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스포츠클럽 활동이 학생들에게 친구와의 친근감과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학력향상에 큰 보탬을 주고 있어 우리학교 학생들은 스포츠클럽 활동이 학교생활 중 가장 즐거운 활동이 되어가고 있다.

그림동화를 활용한 언어적 창의성 신장



김 재 희

양산 하북초등학교 교사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가장 길러주고 싶은 것은 독서하는 습관이었다. 독서 습관만 길러 준다면 학교 공부는 물론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치게 될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차에 우연히 접하게 된 동화 구연을 국어 수업에 응용하거나 그림동화를 수업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수업 속으로 쑥 빨려 들어오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림동화를 수업에 자주 활용하게 되었고, 교사의 의도된 독서 지도가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교사의 의도적 독서 지도의 일환으로 저학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그림동화 활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1. 그림동화란?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 달라진 점 중 하나가 교과서에 실린 그림동화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그림동화는 텍스트가 짧기 때문에 단위 시간동안 전체의 내용을 소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여겨지며 그 교육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 가. 책과 문자의 세계로 안내하는 길잡이가 된다.
- 나. 즐거움과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언어와 인지 발달에 효과적이다.
- 다. 듣기 태도와 능력을 길러주고 자연스럽게 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다.
- 라. 예술적 심미안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상상력의 발달을 돕는다.

2. 언어적 창의성이란?

언어적 창의성이란 ‘국어 이해와 표현 상황에서 기존하는 요소들로부터 새롭거나 독창적인 산물을 만들어 가는 동시에 적절성과 유용성을 갖추어 가는 정신 과정’을 말하며, 그림동화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사고요소(유창성, 융통성, 정교성, 독창성, 상상력)를 기를 수 있을 것이다.

3. 그림동화로 여는 수업 전략

‘그림동화로 여는 수업’이란 수업의 전·중·후에 그림동화를 적절히 활용하여 수업의 효과를 높이는 수업을 의미하며 그림동화를 활용한 일반적인 수업 전략은 다음과 같다.



책 소개하기



상호작용하며 읽어주기



서로 나누어 읽기(짝, 모둠)



어린이 혼자 읽기

4. 그림 동화로 여는 놀이 학습의 예

활동명	활동 방법	창의성	활동명	활동 방법	창의성
OX퀴즈	글의 내용 파악하기	정교성	역할극	등장인물이 되어 자기 의견 말하기	민감성
질문 릴레이			물레방아놀이	돌아가면 이야기하기	융통성
주사위 놀이	흥내 내는 말 찾기	융통성	수수께끼	빚대어 말한 뜻이나 이름 알아맞히기	상상력
이야기 릴레이	이야기 이어가기	융통성	말잇기 놀이	이야기 내용과 관련된 낱말 이어가기	정교성
왜냐하면	까닭 말하기	정교성	다섯 고개	5번 설명하거나 들어서 맞히기	상상력

5. 그림동화를 동화구연으로

신체부위를 통한 간단한 발성법 연습으로 그림동화를 동화구연으로 표현할 수 있어 그 재미를 더할 수 있다. 3가지 정도의 목소리만으로도 간단한 그림동화 구연이 가능하다.

신체부위	동물 소리로 연결	가족 음성	음색 표현
배 밑 (골반 밑)	어 ~ 흥(호랑이 소리, 낮은 시 음계) - 배 밑, 가슴, 후두, 비강, 구개를 통한 공명한 소리로	할아버지	애, 어머야! 어서들 오너라
배 (배 전체)	멍멍멍멍(강아지 소리, 낮은 도 음계) - 배 전체가 움직이며 가슴, 목, 구개가 소리통이 되게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여보, 사랑하오.
목	콹콹콹(오리 소리, 높은 미 음계) - 목에서 누르는 소리로	남자아이	엄마밥 주세요.

6. 그림동화 수업에 이용되는 학습 자료



재 활용 빅북



면장갑인형



역할놀이세트



손가락 인형

학생과 소통하는 수학수업 아이디어



장 영 수

창원삼계중학교 교사

1. 들어가며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환하게 웃는 학생들의 모습을 늘 바라지만 실제로 이루는 것은 그리 쉽지만은 않다. 특히 중학교 2학년 부등식 단원은 풀이방법을 익히기 위해 지루한 계산을 반복적으로 해야 해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단위이다. 평소 부등식의 풀이를 가르칠 때마다 어떻게 수업을 진행해야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재미있는 수업이 될까 고민을 했었는데, 여러 선생님의 권유로 나가게 된 수업연구대회의 주제가 마침 〈일차부등식의 풀이〉이었고 대회를 준비하면서 수업 방법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이 시작되었다. 이 글은 5월 수업연구 도 대회에서 수업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2. 펼치며

가) 교수·학습에 적용된 수업형태

수업은 모듈별로 진행되며 모듈원간의 협동학습 및 탐구학습, 게임을 통한 학습이 이뤄지도록 구성하였다. 여러 가지 일차부등식의 풀이를 익히기 위한 사다리타기 게임, 협력하여 주어진 과제를 잘 해결하는 모듈과 발표하는 모듈에게 스티커를 부여하는 스티커제도를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에의 참여도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나. 동기유발

수학에서의 동기유발이라면 수학이 실생활과 관련이 많은 과목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수업에서는 ‘닉부이치치¹⁾의 도전과 꿈’이라는 동영상을 통해 동기

1) 닉 부이치치 (Nicholas James Vujicic, 1982.12.4.~) :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났지만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동기부여 연설가의 꿈을 이룬 인물임.

유발을 하였다. 일차부등식의 풀이 방법을 배우고 풀이라는 노력을 통해 ‘해’를 구하는 것처럼 학생들이 수학 공부를 하는 이유를 이루고자 하는 ‘꿈’을 위해 한걸음씩 노력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으로 연결 지어 보았다.

다. 사다리타기 게임

사다리타기 게임을 통해 일차부등식의 풀이 방법을 재미있게 익히도록 하였다. 사다리를 타고 가면서 만나게 되는 일차식, 부등호, 숫자 등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일차부등식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모둠별로 일차부등식을 풀고 구한 해의 절댓값이 가장 큰 모둠이 이기는 것으로 게임 규칙을 정하였다.

라. 학습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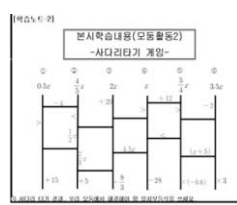
수업의 마무리 단계의 학습정리는 학생들의 꿈과 꿈을 위한 도전을 일깨우고자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이다. 배운 내용의 핵심단어가 적힌 사과 열매가 ‘일차부등식 나무’에 주렁주렁 열렸을 때, 나무가 열매를 맺고 일차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것처럼 학생들이 이루고자하는 꿈도 꾸준한 노력을 통해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학생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다 함께 “나는 할 수 있다”를 외치면서 학습 정리를 마쳤다.



동기유발



사다리타기 게임



학습정리

3. 마무리하며

본 수업에서는 게임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활동 중심의 수업을 하려 하였고, 수학수업을 통해 이루고자하는 꿈에 대해 교사와 얘기를 나눔으로써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였다. 학생들은 교사를 향해 신호를 보낼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안테나로 교사들이 어떤 신호를 내보내고 있는지 민감하게 포착하고 교사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기를 바란다. 교사는 보다 활동 중심의 수업을 많이 하고 학생들에게 안테나를 돌리고 그들의 신호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국어사용능력 신장을 위한 프로젝트 수업



하 승 우

의령 부림초등학교 교사

I. 들어가며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은 인지적·사회적·운동기술적인 이유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 언어발달 지체나 언어장애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언어와 사고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서로 상호작용하며 발달해나가는데, 장애학생들은 언어발달의 지체로 인하여 인지발달이나 의사소통능력, 문자해독과 국어능력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게 된다. 이것은 타교과의 낮은 학업성취도와 자신감 결여 등으로 이어져 교우관계 및 학교생활 전반에서 적응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학습준비도가 낮고 한 번에 많은 내용을 학습하기 어려우며, 목표 달성을 위해 반복연습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II. 특수학급에서의 프로젝트 수업 활용

1. 프로젝트 수업이란?

프로젝트는 아동들이 무언가를 결정하고, 논의하고, 설명하고, 예측하고, 가설을 세우고, 점검하고, 인터뷰하고, 새로이 추진하고, 관찰이나 상상으로부터 이끌어내고, 발견한 것을 보고하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책임감을 갖고 수행하는 등과 같은 것을 포함하게 된다(이명조, 2010). 프로젝트에서 학생들은 교사의 도움이나 지도 하에 하나의 주제에 대해 여러 주 동안 흥미가 충족될 때까지 정신을 몰입시켜 철저하게 탐구하면서 심화 학습해 나가게 된다.

프로젝트 수업의 활동 방식은 토의활동, 현장활동, 표현활동, 조사활동, 전시활동이 있다. 이러한 활동 요소들을 재구성하여 특수학급의 국어수업에 활용함으로써, 특수교육 과정에서 지향하는 국어교과의 교육목표를 성취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국어능력을 신장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일반화할 수 있다.

2. 프로젝트 수업 활용의 실제

가. 월별 프로젝트 정하기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고 학생의 흥미도가 높은 것을 찾아 국어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월별 프로젝트의 주제를 정한다.

	월	주제		월	주제
1 학 기	3	봄	2 학 기	9	가을
	4	학교		10	동물
	5	음식		11	나의 몸
	6	여름		12	겨울-1
	7	올림픽		2	겨울-2

그리고 프로젝트 기간 동안 학생이 한 가지 주제에 몰입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 활동 요소를 준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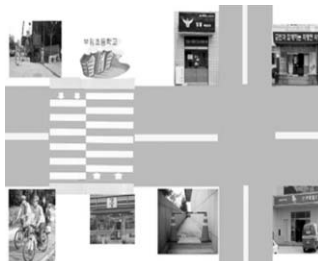
토의	조사	표현	전시	현장 활동
경험 나누기 생각 모으기 주제망 구성 질문목록 작성	독서활동 동영상 시청 질문하기 관찰활동	쓰기, 글짓기 인형극 독후활동 책 만들기 그리기, 꾸미기	발표 전시 장기자랑	현장체험학습 공예체험 요리실습

나. 독서 및 독후활동으로 더욱 풍성하게!

월별 프로젝트 주제가 정해지고 나면 수업 준비를 위해 교사는 예비 주제망과 활동예상안 등을 구성해야 한다. 이때 문학 활동으로 주제에 적합한 동화책을 활용한 수업은 수업의 시작 단계에서 동기유발과 경험 나누기, 생각 모으기 등의 활동에 효과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독후활동과 결과물의 전시 및 감상활동으로 학생들의 성취감도 높아졌다.



3월 : 봄 - 봄동산 꾸미기



4월 : 학교 - 학교지도 만들기



6월 : 여름 - 여름사전 만들기

다. 체험활동으로 더욱 생생하게!

일주일에 2시간씩 배당되어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였다. 현장체험학습 또는 요리실습, 공예활동 등의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통해 국어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가정, 학교생활 및 지역사회에서 일반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월 : 봄 - 봄동산 꾸미기



5월 : 음식 - 김밥 만들기



6월 : 여름 - 아영수련회 참가

III. 나가며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해서 대단히 거창하게, 혹은 활용하기 어려운 접근법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프로젝트 수업에서 특수교육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서 상황에 적절하게 재구성하여 수업에 적용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프로젝트 접근법이 도입되면서 현재 유아기관의 70%에서 적용되고 있다(이명조, 2010). 이러한 프로젝트 접근법을 활용한 수업은 유아교육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교육의 목적이나 방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특수교육에서도 그 효과와 교육적 의의 및 가치가 대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어교과에서 프로젝트 수업의 활용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국어능력뿐만 아니라 사고력 및 탐구력, 문제해결력, 창의력, 협동적 태도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이명조(2010). 영유아 프로젝트 수업, 동문사

선배의 나눔과 배려의 교육기부가 모교의 교육력 향상에 기여하는 창원 우암초등학교와 거제 성포중학교

후배들의『꿈이 담긴 책』을 기부하는 선배

- ◆ 창원 우암초등학교(교장 박근제)는 매년 후배들에게『꿈이 담긴 책』을 선물하는 선배(김영원, 홍익대 교수)가 있다.
- ◆ 후배들의 꿈을 들어보고, 꿈에 맞는 책을 선물하여 책 속에서 자신의 롤모델을 찾고, 소중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선배가 있다.
- ◆ 올 여름방학에는 홍익대 미대 학생들과 함께 2박 3일간 모교를 방문하여 후배들을 위해 다양한 미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 또한 재능기부뿐만 아니라 모교에 조소작품을 기증, 후배들의 꿈과 이상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꿈의 에너지원』을 후배들이 찾아주길 기대하며

- ◆ 거제 성포중학교(교장 박종철)는 『핵융합 에너지와 플라즈마』의 전문가 선배(양형렬 박사, 대덕연구단지)가 있다.
- ◆ 모교를 방문하여 꿈의 에너지원으로 알려져 있는 핵융합 에너지의 기본원리와 전 세계의 연구현황, 앞으로의 전망을 들려주는 선배가 있다.
- ◆ 성포중 29회 졸업생으로 모교를 찾아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와 에너지 자원 고갈에 직면한 이상적인 대체에너지원으로 기대되는 핵융합에너지의 연구와 성과를 중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알기 쉽게 들려주는 후배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기르기 위한 맞춤형 토요학습프로그램 운영



박 건 춘

창원 덕산초등학교 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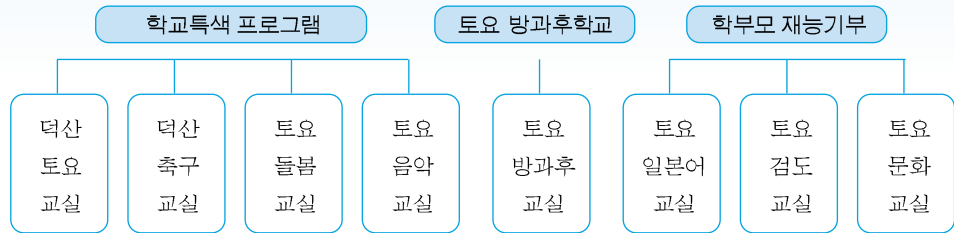
1. 맞춤형 토요학습프로그램!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주5일수업제는 경험의 장을 학교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가정, 지역사회로 확대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기 주도적 학습력과 창의력 신장을 기대하며, 가족 간의 유대증진과 사회체험을 통한 바람직한 인성 함양의 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이를 위해 본교는 주5일수업제 시범운영을 통한 기반 마련과 지역의 특수성, 학생, 교사,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으로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력과 문제 해결력을 신장시키고 가정과 지역사회로 교육의 장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본교만의 특색 있는 맞춤형 토요학습프로그램 개발·적용을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력 신장, 가족 간 유대 증진 및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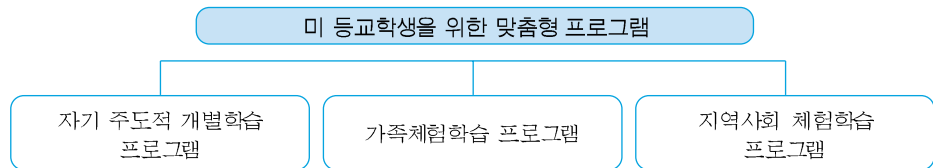
2. 맞춤형 토요학습프로그램! 이렇게 운영합니다

주5일수업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토요휴업일 학생들의 일정에 맞는 맞춤형 선택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학습프로그램의 선택 폭을 넓혀 구성하였다. 맞춤형 토요학습프로그램 세부 내용은 교육과정의 영역 중 흥미, 특기, 탐구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다양한 체험중심의 학습이 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자기 학습력 신장 및 학습방법의 학습 기회 제공, 학습에 대한 흥미 증가, 지식과 경험의 폭 확대에 초점을 두었고, 크게 등교학생을 위한 맞춤형 토요프로그램과 미 등교학생을 위한 맞춤형 토요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가. 등교학생을 위한 맞춤형 토요 프로그램



나. 미 등교학생을 위한 맞춤형 토요 프로그램



학교특색프로그램의 경우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월별 만족도 조사 실시에 따른 결과와 학부모의 프로그램 구성에 따른 건의사항을 받아들이어 운영함으로써 학생 참여율이 꾸준히 높아졌다. 특히 학부모 재능기부 프로그램의 신설은 교사의 지도부담 감소와 학부모의 학교교육참여 기회 확대,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미 등교 학생의 경우 본교 특색교육과제인 덕산 꿈나래 활동과 연계함으로써 매주 자신의 활동을 평가하고 반성하고 다음의 학습에 피드백 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3. 학생이 즐거운 토요휴업일을 위하여!

본교의 맞춤형 토요학습프로그램의 운영은 학생에게 교실 수업으로는 경험하지 못하는 다양한 문화와 교육의 기회를 확대·경험하게 함으로써 학교교육 만족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주5일수업제가 좀 더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기관의 토요학습 프로그램의 확대와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홍보, 학부모의 적극적인 교육기부 확대, 학생들의 안전지도 및 생활지도에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때 학생이 즐거운 토요휴업일이 정착되어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음악 · 운동 · 독서로 가꾸는
건강한 몸과 마음



정영혜

거창 가조중학교 교장

오늘날의 학교는 학교폭력 문제나 부적응으로 인한 중도탈락 학생문제가 정말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제 이들 문제는 학교를 넘어 커다란 사회 전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학교와 교육관련 기관은 물론 사회 전체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본교는 경상남도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특색과제 운영이 바로 이런 학교의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믿고, 2011년부터 학교중점과제로 운영하고 있다. 중학교의 교육에서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 중요한 것은 어떤 분야의 전문성보다는 원칙과 기본을 지킬 줄 아는 바른 인성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이 바른 인성교육의 지름길이 곧 자유로운 예체능교육이다. 미래사회를 살아갈 우리학생들에게 좋은 인성이야말로 무엇보다도 강한 경쟁력이 될 것이다. 또 우리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것 중 하나는 무슨 일이든 단번에 잘할 수 있는 재능이 아니라 성취하고자 하는 일을 성취할 때까지 두 번 세 번 끝까지 굴하지 않고 도전할 줄 아는 강한 정신력이다. 마지막으로 독서교육이야말로 배움에 대해 성실히 평생 노력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본교에서는 중점과제로 첫째, 음악이 울려 퍼지는 학교조성, 둘째, 운동으로 건강한 몸과 마음 가꾸기, 마지막으로 활동중심의 독서교육을 특색과제로 설정하여 학교의 온 교육력을 집중해 노력하고 있다.

1. 하나되는 리코더 하모니

가. 왜 리코더 합주인가?

음악 활동은 미적 경험과 음악적 능력 향상 및 창의성 계발에 매우 효과적이다.

그 중에서도 리코더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학생들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친근한 악기이면서도 다양한 연주가 가능한 악기이기도 하다. 이런 리코더를 전교생이 함께 합주를 함으로써 원만한 선후배 및 교우관계 형성으로 건전한 학교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고, 합주 및 연주발표를 통해 자아 성취감을 느낌과 동시에 인내심과 협동심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 교과활동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학력을 향상시키고 사교육비 경감에 보탬이 되며, 교육적 보살핌이 필요한 학생들의 안전하고 교육적인 방과 후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나. 어떻게 운영했나

리코더 합주를 교과활동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학교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을 고려, 유동성을 확보하여 운영했다. 또 학생의 소질 및 개인차를 고려하여 파트별 악기를 자유 선택하게 했으며, 연습실 확보를 위해 음악실, 강당, 그 외 특별교실을 사용했다. 연습실은 연중 개방하여 합주 및 파트별 합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담당교사와 담임교사의 상시 협의를 통해 학생 관리에 만전을 기했으며, 다양한 장르의 음악 합주를 통한 흥미 유발 및 연주실력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매 학기별 평가·환류, 점검을 위한 소발표회를 가졌고, 봉사활동 및 경연대회 참가를 통해 자아 성취감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했다.

다. 얻은 성과는 무엇인가

그 결과 제47회 경남중등종합학예발표대회 거창 대표 (6월)로 선발되었으며, 제47회 경남중등종합학예발표대회 리코더 합주 ‘최우수상’을 수상 (8월)했다. 또 2011년 경남교육박람회 거창 대표로 연주회를 했다. 무엇보다 전교생 리코더합주 참여로 인한 원만한 선후배 관계 형성과 교우관계 개선 등 건전한 학교 문화정착은 어떤 가시적 성과보다 값진 것이라 할 수 있다.

2. 배구사랑 동아리 활동

가. 왜 배구사랑동아리 활동인가?

학생의 소질·적성 계발 및 취미·특기 신장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돌봄 학교의 취지에 부합하는 동아리 중심의 학생문화 창달을 위해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기존 학교의 시설 및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배구가 가장 적합한 종목으로 선정되었다. 이것은 또 예술과 체육, 문화활동의 교내 흡수로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을 주고 방과 후 수업으로 운영됨에 따라 교육적 보살핌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교육적인 방과 후 생활에도 효과적인 종목이었다.

나. 어떻게 운영되었나

학생·학부모의 희망을 고려하여 배구에 소질이 있는 학생을 중심으로 선발, 한 반은 20명 내외로 편성했다. 지역 인사 중 도민체전 대표선수를 강사로 위촉하여 화·금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50분까지 연속 수업을 2회 실시, 한 학기에 10주 간 진행하고 이를 3개년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집중적, 연속적 기능향상을 도모했다. 또 교육활동의 질 향상을 위해 매 학기별 평가·환류, 점검을 위한 소발표회(배구사랑 시범경기)를 가졌다.

다. 얻은 성과는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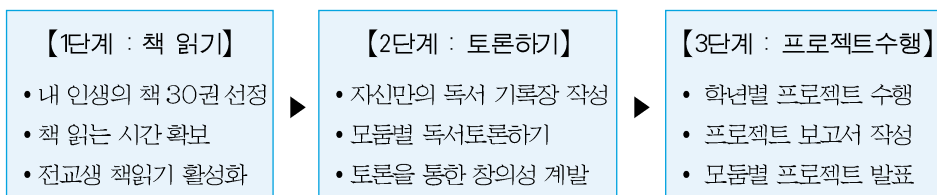
2011. 거창군 청소년 문화존 활동 참가(2011년도 4회), 2011. 초중학생체육대회 배구대회(군부)에서 준우승(2011.4월), 2011. 교육감배 스포츠클럽 배구대회 중등부 준우승(2011.8월), 2011. 거창교육지원청 주최 제5회 교육장배 초중학교배구대회에서 중등부(면부) 우승(2011년 10월)등 여러 경기에 참가, 수상하는 실적을 얻었으며, 탁구반, 풍물반, 리코더반, 플룻반 등 전교생 1인1기 교육으로 정착, 학생들로 하여금 정규 교과 시간 이외의 여러 가지 교육 활동을 통하여 자기표현의 기회를 확대시키고, 소질과 적성의 계발 및 체험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인성을 형성시킬 수 있었다. 또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스포츠 클럽 운영은 보다 개방되고 확대된 방과 후 학교 운영의 기반을 확보하여, 농촌 돌봄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꿈을 가지고 가슴이 따뜻한 학생으로 자랄 수 있게 하였다.

3. 활동중심의 창의적 독서교육

가. 왜 활동중심의 창의적 독서교육인가

농촌 학생들은 공중파 TV, 인터넷에 여가 시간을 낭비하는 비율이 높고, 학부모 역시 자녀의 독서 지도를 할 능력과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농촌학생들은 독서에 대한 흥미를 키우고 진지하고 올바른 독서를 하기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학생들의 독서습관 형성 미흡은 결국 자기주도적 학습력과 사고력 형성의 어려움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지식 확충, 지구력, 자기주도적 학습력, 사고력 및 창의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활동중심의 독서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나. 어떻게 운영되었나



1) 1단계 : 책 읽기

가조중학교 학생들은 입학하는 그날부터 ‘내 인생의 중학 시절, 30권의 책’을 읽게 된다. 학생들은 아침에 도서관에서 제공한 책을 선생님과 함께 읽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가조중학교는 전체 교사들의 동의 아래 아침자유학습 시간, 교과재량 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독서 시간으로 정하고, 매주 목요일 7교시 방과 후 시간을 정규시간 표에 편성하여 독서 활동 시간으로 고정시켜 모든 교사를 독서교육에 투입하였다.

2) 2단계 : 토론하기

가조중학교 학생들은 2주 동안 책읽기가 끝나면 읽은 내용을 자신의 느낌 위주로 학교 자체에서 제작한 ‘꿈꾸는 느티나무’ 독서기록장에 기록, 자신만의 독서기록장을 만들었다. 독서토론은 한 학년이 6명씩 모둠을 만들고, 모둠별로 한 명의 지도교사가 배치되었다. 여러명의 지도교사가 필요하므로 학년별로 토론 주관을 달리하여 매 독서토론 시간을 가졌다.

3) 3단계 : 프로젝트 수행

독서프로젝트는 1학년 「할아버지 이제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를 읽고 ‘우리 고장 어른의 탐방’, 2학년 「압록강은 흐른다」를 읽고 ‘가조의 3·1운동 조사’, 3학년 한비야의 「바람의 딸 걸어서 지구를 세 바퀴 반」을 읽고 ‘우리고장 마을 유래와 문화재 조사’로, 5월 6일 재량휴업일을 이용하여 모둠별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전교생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자의 역할을 맡아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중학생으로서는 아주 훌륭한 영상자료를 제작하였고, 발표일에는 전교생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날이 되었다.

다. 얻은 성과는 무엇인가

2011. 경상남도교육청 독서교육경진대회 장려상을 수상했으며, 학생들과 교사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서로의 삶을 가꾸게 도와주었을 뿐 아니라 지식중심의 교육 문제를 창의·인성교육으로 승화시켰으며, 활동중심의 독서교육은 자기주도적인 학습의 지름길임을 알게 했다.



리코더 연습



배구 연습



독서 토론

『꿈두드림(DoDream)』벽방교육으로 행복up 학교 만들기



배 한 권

통영 벽방초등학교 교장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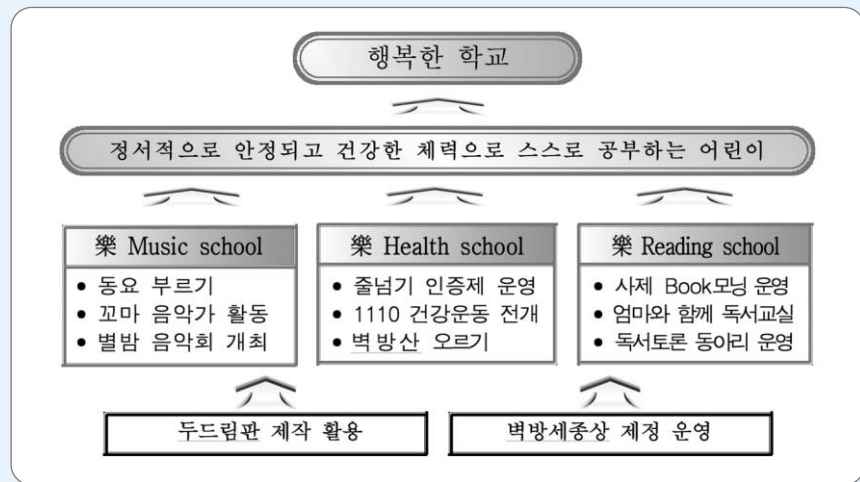


02



03

요즘 학교폭력은 학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교육패러다임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교육패러다임이 ‘智德體’에서 ‘體德智’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학교에서 교육의 방향이 학력이나 지력은 열심히 가르쳤지만 아이들의 덕성이나 체력은 조금 소홀히 한 경향이 있었다. 학교가 학생들의 체력과 덕성 기르기를 중요과제로 삼고 체험적으로 지도할 때 건강한 학교생활로 이어지고 사회적 문제들도 줄어들 것이다. 본교에서 꿈두드림(DoDream) 벽방교육으로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실천하고 있는 ‘두드림판(Do Dream Board)’ 제작·활용과 ‘벽방세종상’ 제정 운영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 01 별이 빛나는 음악회
02 벽방가족산행
03 1110 운동활동 모습

1. 두드림판(DoDream Board) 제작 활용

시대적인 요청과 학생의 성장과정에서 꼭 가르쳐야 할 필수 내용을 체계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두드림판(DoDream Board)』학습장을 제작·활용하고 있다. 지도시간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아침 시간, 교과 재구성 시간, 방과후 시간이며 그 구성내용의 일부인 『벽방 三樂 school』의 운영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주제	구성 내용	활동 사진
1. 음악 으로 즐거 워요	학년별로 담임교사와 학생들이 의논하여 학급에서 1년 동안에 부를 반가 개사곡과 동요 합창곡 10곡을 선정한 후 매주 1회 아침 활동시간에 연습하고 있다. 또, 전교생이 오카리나를 소지하여 오카리나의 기초적인 운지법부터 고급 곡까지 20단계 수준까지 자율적으로 연습하여 꼬마 음악가 연주회 및 별이 빛나는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별이 빛나는 음악회】
2. 운동 으로 즐거 워요	학생들이 즐겁기 달인이 되도록 학년별 종목 및 도달 목표를 제시하고 매주 월요일 체력증진의 날에 연습한 후 결과를 두드림판에 기록한다. 또, 지역의 명산 벽방산을 사제동행 1회, 가족동행 1회 등산을 한 후 실시한 결과를 표현한다. 그리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야영수련 활동, 현장 체험활동 후의 결과도 기록한다.	 【사제동행 벽방산 등산】
3. 책 읽 기로 즐거 워요	학년 수준에 맞는 올바른 독서생활 안내, 학년별 연간 필독 도서 및 권장 도서 안내, 내가 읽은 연간 책 목록 쓰기, 독서 후 감상 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학습지를 제공하여 두드림판이 독서기록장을 겸하도록 하고 있다.	 【독서 동아리 활동】

2. 『벽방세종상』 제정 운영

글로벌 지구촌 사회에서 살아갈 미래 세대에게 외국어 사용능력도 중요하지만 초등 학교 시절에는 우리 말과 글의 정확하고 올바른 사용과 표현력 기르기는 대단히 중요하다.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바른 국어사용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글씨 바르게 쓰기, 받아쓰기, 창의적인 글쓰기, 일기쓰기, 고운말 사용하기 등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습과 생활 장면에서 꾸준히 누가적으로 지도하여 연 2회 학기말에 『벽방세종상』을 제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가. 벽방세종상 평가 양식

벽방세종상 평가 기록표																			
제()학년 ()반 ()번 성명 ()																			
순	성명	글씨 바르게 쓰기						받아쓰기				글짓기						합계	
		두드림판기록(30)				경필쓰기(40)		받아쓰기대회(30)				글짓기대회(60)				일기(40)			
		1회	2회	3회	계	1회	2회	계	1회	2회	3회	계	1회	2회	3회	계	1회		2회
		합계																	

나. 벽방세종상 상장 문구

벽 방 세 종 상

제 6학년 1반 성명 이순신

위 학생은 글씨 바르게 쓰기, 받아쓰기, 글짓기 부분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한글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빛내었기에, 한글창제에 담긴 숭고한 세종대왕의 정신을 기리고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12년 7월 0일

벽 방 초 등 학 교 장

끝으로 『두드림판(DoDream Board)』의 제작 활용은 선생님에게는 학생지도의 편의성을 주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꼭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찾아 노력하게 하였으며, 『벽방세종상』제정 운영은 바른말 고운말을 사용하게 하는 등 올바른 국어사용능력을 신장시켰다. 특히 『두드림판(DoDream Board)』을 활용한 『벽방三樂 school』의 실천은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도록 하여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한 걸음 다가가게 하였다.

친환경 · 학생중심체험교육으로 꿈을 키우는 학교



정 연 보

남해 설천초등학교 교장

본교는 2009년 농산어촌 전원학교로 지정된 후 자연친화적인 학교 시설, 학생중심의 교육환경 조성, 학생과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교육활동으로 여건을 조성하고 그에 맞춰 운영하고 있다. 2012년에도 농산어촌 전원학교로 재 지정됨에 따라 세부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화로운 교육활동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다.

1. 띠앗누리 체험활동

가. 학교 띠앗조직

‘띠앗’은 형제나 자매 사이의 우애심을 뜻하는 순 우리말이다. 이를 활용한 ‘학교띠앗’은 학생들 간의 정을 일컫는 말이다. 즉,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서로 다른 학년끼리 조직된 ‘학교띠앗’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보살펴주면서 정을 쌓아가는 것이 학교 ‘띠앗’이다. ‘띠앗누리’는 형제자매 사이에 우애 있는 세상을 의미하는 순 우리말로 본교에서는 우애를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나. 학교시설을 활용한 학생 중심 생태체험

1) 1인 1야생화 가꾸기

학교 화단에 1인 1야생화 가꾸기 화단조성과 생태 연못, 덩굴 식물 터널을 조성하여 비오톱 체험학습을 하면서 야생화와 대화하기, 편지쓰기, 그림 그리기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야생화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는 학생들에게는 자연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학교문화가 조성되어 정서가 순화됨을 느낄 수 있다.

2) 천연염색(쪽) 하기

5, 6학년 학생들이 교사들과 함께 직접 기른 쪽으로 염료를 채취하여 손수건을 염색하여 직접 사용하였다. 천연염색 체험을 통하여 조상들의 지혜와 색깔변화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훌치기와 시간차 염색 등 다양한 무늬 넣는 기법을 통하여 창의성을 기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3) 밀서리, 밀타작 활동

화단에 재배한 우리밀로 밀 서리 체험과 밀 타작 체험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고학년들이 밀을 비벼서 저학년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활동으로 동생들과 함께하는 밀서리 체험을 통하여 피앗누리를 실천하고, 옛날 부모님들의 정서를 느껴보게 하도록 하며, 해마다 실천하는 체험 중의 하나이다.



1인 10뿌화 가꾸기



천연염색 체험



밀서리, 밀타작체험

2.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학부모가 함께하는 교육활동

가. 전통식생활 바르게 알기

우리 식생활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태도를 기르며 아울러 가족애를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1) 메주, 장 만들기

간장과, 된장, 김장을 우리 손으로 만든다는 전통을 세우기 위하여 학교에 장독대를 설치하였으며, 문항마을에서 메주 만들기 체험을 통한 장 담그기 활동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2) 김장담그기

매년 학교 텃밭에서 기른 배추를 이용하여 김장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이 직접 만든 장과 김치를 학교 급식에 활용하였고 이는 편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었다.

나. 구두산 야영활동

인근 구두산 공터에 야영장을 직접 설치하여 해마다 야영을 실시하였다. 야영 활동을 위한 피앗대항 과정활동을 하였고 학부모님들은 식사준비, 야간담력훈련, 잠행, 모닥불 의식 등에 동참하였다.

다. 유자꽃 도서관에서 책의 향기를

‘희망의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에 선정, 내 집처럼 편안한 분위기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유자꽃 도서관’을 개축한 이후 사서교사를 채용하여 방과후학교 독서 교실 등 알차고 심도 있는 독서 교육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역민을 위해 도

서관 책을 대여하고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요가 수업도 개설하여 지역주민과 학부모에게 실시하고 있다.



장 담그기



유자꽃 도서관



구두산 야영활동

3. 다양한 예술활동 기능을 통한 인재 육성

가. 방과후학교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교육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다양한 소질, 적성을 개발 할 수 있도록 합주반, 합창반, 밴드반, 피아노반, 가야금반, 태권도반, 골프반, 사진반, 영어 회화반을 방과후학교로 운영하고 있다.

나. 다양함과 보살핌이 공존하는 온종일 돌봄

결손가정 및 경제력 취약 등의 이유로 가정 내에 방치되는 학생들을 위하여 20시 20분까지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수요자의 교육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논술시간, 종이공예시간, 요리시간 등 매일 특색 있는 교육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방과후학교 가야금반



방과후학교 밴드반



온종일돌봄 요리반

이상과 같이 본교의 친환경 시설 및 교육여건 조성, 교육활동을 살펴보았다. 농산어촌의 현실이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문화요소가 잘 갖추어지기는 어렵다고 본다. 하지만 학교가 노력하고 그 여건을 여러모로 개선한다면 학생들에게 보다는 환경과 교육의 질이 공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연·인간·환경이 공존하는 곳, 그 속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교육의 본질임을 자각하고 본교는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

나의 꿈을 찾아 떠나는 여행- 「Book 積 Book 積」 책 사랑 축제



전 경 희

진주 축석초등학교 교장

1. 꿈 여행 → 들어가며

‘If you can dream it, you can do it.’

- 꿈 꿀 수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실현 할 수 있다. (윌트 디즈니)

초등진로교육의 목표는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일의 중요성을 이해하며 진로탐색과 계획 및 준비를 위한 기초소양을 키움으로써, 진로개발역량의 기초를 배양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교에서는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을 통해 아이들에게 꿈꾸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꿈을 실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마음 속 깊이 심어주기 위해 연중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진로교육과 연계한 창의적 체험활동 ‘Book 積 Book 積 책 사랑 축제’는 책을 통해 미래의 자기의 꿈을 찾는 활동을 통해 막연히 꿈을 꾸는데 멈추지 않고 꿈을 이루기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였다.

2. Book → 꿈 찾기의 길라잡이

‘1위-교사, 2위-의사, 3위-연예인, 4위-운동선수, 5위-교수, 6위-법조인, 7위-경찰, 8위-요리사, 9위-패션디자이너, 10위-프로게이머’ 교과부에서 초등학생 4,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초등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순위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미래의 꿈이 곧 희망 직업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희망 직업을 선택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부모님의 의견이다. 그런데 학생들은 희망 직업이라는 꿈 때문에 때론 상처를 입고 힘들어한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정말 하고 싶은 일,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될 수 있는 보람된 일을 찾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고민 속에서 닳고 싶은 인물의 생각과 살아온 삶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책읽기에서 출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라는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2월

학년별로 진로관련 도서 10권을 포함한 50권의 권장도서목록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도서 목록은 자체 제작한 학사달력을 통해 홍보하여 가정과 연계한 지도가 이루어 지도록 하고 있으며, 매일 아침 사제동행 20분 독서시간과 교사, 학생, 학부모 독서 동아리활동을 통해 꿈 찾기의 바탕이 되는 교양과 지식을 넓히는 기회로 삼도록 하였다.

3. 積 → 꿈 세우기 체험

가. 꿈을 세우기 위한 체험 활동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꿈을 찾아 자기 삶의 목적과 의미가 될 수 있는 꿈을 세우기 위한 체험 중심의 활동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명	대상	시기	비고
· 책과의 만남- 권장도서50권(진로관련도서 10권포함)	전학년	3월	- 찾아 배우는 촉석 꿈 동이의 오감 체험 학습장을 활용한 사전, 사후 지도
· 아침을 여는 Book Star - 사제동행 20분 책읽기	전학년	연중	
· 어머니 독서 동아리「마중물」- 책 읽어주는 어머니	1, 2학년	4~12월	
· 교사 독서 동아리「독·세·알」 - 독서를 통해 세상을 알아가는 모임	해당교사	연중	
· 사제동행 독서 동아리「시아놀자」- 시 쓰기 교실	해당 교사및 학생	연중	
· CPS 인성지능 적성검사	6학년	4월	
· 진주시 청소년 문화 Zone (직업) 체험학습	4,5학년	4월	
· 진로 인성교육 - 진주교육지원청 창·체 센터 지원	3,6학년	해당 시기	
· 생활의 달인 - 부모님 직업체험 주간	전학년	5월	
· Book 積 Book 積 책 사랑 축제 - ‘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작가와의 만남	전학년 5,6학년	7월	

나. 스토리 형 꿈 세우기 - 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만드는 기술

진로교육과 연계한 창의적 체험활동 ‘Book 積 Book 積 책 사랑 축제’기간 중 7월 17일(화) 10시부터 12시까지 본교 촉석관 2층에서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작가와의 만남 특별 강연을 실시하였다.

「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의 저자 이익선 교수 (동아대학교 경영학과)는 ‘꿈꾸는 일에도 기술이 있다’라는 주제로 삶의 목적에 어울리는 스토리 형 꿈 만들기, 미래의 나에게 어울리는 꿈 만들기, 불가능해 보이는 꿈 만들기, 부자라고 생각하면서 꿈 상상하기, 단계적으로 꿈 확장해 나가기, 남을 도와주는 꿈 만들기의 여섯 가지 꿈꾸는 기술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화를 들어 소개하였다.

“그냥 선생님이 되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채의승 회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박사 학위를 가진 선생님,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나라의 어린이들을 위해 학교를 100개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스토리 형의 꿈을 설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6학년 박동해 학생의 말처럼 그동안 꿈을 가지고 노력하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어떻게 꿈을 만들어 가야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5,6학년 학생들에게는 미래의 자기의 모습을 단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행복한 꿈 세우기를 위해 가장 중요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학부모들을 위해 9월 13일(목) 다시 한 번 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창의적 체험학습장



나의 꿈 우표 만들기



이익선 작가와의 만남



스토리 형 꿈 설계

4. Book 積 Book 積 → 맺으며

본교에서는 학생들이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책(Book)을 읽으며 꿈을 찾고, 다양한 체험들을 쌓아(積) 꿈을 세우는 방법을 익혀 그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지닌 창의적이고 바른 인성을 갖춘 조화로운 인재로 육성하고자 한다.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학생들의 모습 속에는 남을 배려하고 서로 협동하며 존중하는 태도가 함께 깃들어 ‘꿈과 희망이 넘치는 오감만족 행복교육’이 실현되리라는 믿음을 갖게 한다.

교육기부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으로 꿈 나누기, 생각 더하기



김 경 원

하동 악양초등학교 교장

1.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다

우리는 요즘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마을 전체가 나서야 한다.” 라는 아프리카 속담을 자주 접하게 된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2010년 교육정책 과제로서 창의와 배려의 조화를 통한 미래형 인재 육성을 위해 ‘창의·인성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는 교육기부활동을 잘 표현해주는 말이다.

본교는 면소재지에 위치한 소규모 농촌학교로서 지역사회의 교육적 여건이 부족한 면이 있지만 하동만이 지니고 있는 풍족한 자연환경과 주변의 문화적 환경을 활용하며 교내, 학부모, 지역사회를 통틀어 외부 교육기부(인적, 물적)네트워크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잠재력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찾고 키워주는’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이원화하여 찾아오는 창의적 체험활동은 외부 인적 자원을 교내로 초청하여 실시하고, 찾아가는 창의적 체험활동은 외부 인적자원 및 물적자원으로 학생들이 직접 찾아가 체험하며 배우고 돌아오는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마음을 키우고 사고를 넓혀 글로벌 시대의 주역으로 키우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2. 찾아오는, 찾아가는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

가. 찾아오는 교육 기부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확보하여 무료로 방문하여 실시하는 체험활동 계획 후 교육과정의 재구성에 따른 특색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학년별로 운영하고 있다.

〈찾아오는 교육 기부 장기 프로그램〉

순	일시	대상	지역 인사	소속	장소	프로그램명	운영내용	운영 방법	나누리 (Na-Nu-Ri) 교육영역
1	3월-2일	4-6학년	정○○	악양초 학부모	과학실	풍선아트	• 풍선아트 내용 • 풍선아트 만들기 실습	방과후	나(Na)를 위한 계발
2	3월-2일	4-6학년	임○○	꽃꽃이야기 공방	과학실	압화 만들기	• 압화 만들기 • 천연 비누 만들기	방과후	나(Na)를 위한 계발
3	3월-2일	4-6학년	정○○	최참관대 명예참관	다례실	시조창	• 우리나라 시조 배우기 • 시조창 익히기 활동	방과후	나(Na)를 위한 계발
				이	하	생	략		

〈찾아오는 교육 기부 단기 프로그램〉

순	일시	대상	지역 인사	소속	장소	프로그램명	운영내용	운영 방법	나누리 (Na-Nu-Ri) 교육영역
1	5월 18일 10월 17일	전교생	손○○	악양초 운영위원장	운동장	인명구조견 체험	• 인명구조견 체험 • 애완견 조건하기	교과 연계 (재구성)	우리(Ri)를 위한 동행
2	3월 13일 9월 10일	전교생	김○○	하동경찰서 악양파출소	체육관	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교폭력예방 강의 • 화예행사	창·체 (특별활동)	우리(Ri)를 위한 동행
3	7월 11일	5-6학년	김○○	하동군 보건소	도서관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 동영상 강의 • 예방 체험활동	교과 연계 (재구성)	우리(Ri)를 위한 동행
				이	하	생	략		

나. 찾아가는 교육 기부 프로그램 운영

학교로 찾아오기 힘든 교육 기부 자원(물적)의 시설에는 직접 체험을 실행하여 자기 주도적, 창의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고 있다. 또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교육 기부 자원에 학년별로 테마를 정해 방문해 봄으로써 다양한 문화와 시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주고자 한다.

〈찾아가는 교육 기부 프로그램〉

순	일시	대상	지역 인사	소속	장소	프로그램명	운영내용	운영 방법	나누리 (Na-Nu-Ri) 교육영역
1	5월 4일	1-2학년	강○○	매암차 박물관장	매암차 박물관	다례 체험	• 차 역사와 다례 체험 • 떡차 만들기 활동	교과 연계 (재구성)	나(Na)를 위한 계발
2	5월 4일	4-6학년	오○○	지리산 학교	지리산 학교	작가와 함께하는 이야기 여행	• 동화책 기증 활동 • 작가가 읽어주는 동화책	창·체 (특별활동)	나(Na)를 위한 계발
3	5월 23일	3-4학년	지○○	하동 축협	술있한우 농가	농촌 체험교실	• 농촌 체험 프로그램 • 한우 먹이 만들어 주기	교과 연계 (재구성)	나(Na)를 위한 계발
				이	하	생	략		

다. 경남교육기부(e-나누리) 프로그램 운영

경남교육청과 하동교육지원청에서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재능기부자(자원봉사자)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경남교육기부(e-나누리) 프로그램〉

순	일시	대상	지역 인사	소속	장소	프로그램명	운영내용	운영 방법	나누리 (Na-Nu-Ri) 교육영역
1	4월-12월 매주, 화 목(1시간)	2-3학년 (13명)	강00	개인재능 기부자	2학년 교실	밸리댄스	• 기본 움직임 익히기 • 세부 동작 익히기 • 공연 작품 연습하기	방과후 활동	내(Na)를 위한 계발
2	4월-12월 매주, 목 (1시간)	5학년 (28명)	성00	개인재능 기부자	5학년 교실	POP 예쁜 글씨 쓰기	• 기본 글자 자형 쓰기 • 포스터, 광고물 만들기	방과후 활동	내(Na)를 위한 계발
3	4월-12월 매주, 수 (2시간)	2-4학년 (8명)	이00	개인재능 기부자	다도 예절실	다도 예절 교육	• 다기 다루는 법, 차 끓이고 마시는 법 • 하용촌 다도 예절법	방과후 활동	내(Na)를 위한 계발
				이	하	생	략		

3. 꿈 나누기, 생각 더하기

지금까지 실시해온 교육기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본교 학생들은 1학기가 끝나가는 지금 몸과 마음이 튼튼하게 잘 자란 것을 느낀다. 꿈을 이룬 교육기부자들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내면 속에 들어 있는 궁금증과 호기심, 관심과 재능 등을 자연스럽게 찾아낼 수 있다. 동화 작가와의 만남에서는 글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꿈을 배우고, 인명구조원 교육기부 체험활동에서는 색다른 일의 즐거움과 호기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변호사 선생님의 출장 강연으로 들었던 법교육에서 살아있는 생생한 학교폭력예방의욕이 샘솟았으며, 마술과 목소리 변신의 달인에게서는 뿔어져 나오는 끼와 장기를 맘껏 감상하고 즐길 수 있었다. 매주 열리는 밸리 댄스 시간에는 학생들이 음악과 함께 한껏 끼를 발산할 수 있었고, POP 예쁜글씨 쓰기 시간에는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글랩시에 우리 교사들은 감탄사를 터뜨리기도 하였다. 이렇듯 교육기부는 우리 학생들의 삶을, 나아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 만큼 큰 힘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기부 창의적 체험활동 소감문	
교육기부 창의적 체험활동 모습들	

4. 교육기부 창의적 체험활동에 날개를 달아

교육기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학교에 국한돼 이뤄지는 딱딱한 교육활동에 다양한 현장의 생생함을 넣어줄 매우 의미 있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며 무엇보다도 바깥에서의 실무 경험과 체험이 자연스레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지금의 교육기부 창의적 체험활동은 미래의 무한한 인재와 자산으로 돌아올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꿈을 이루어 그 꿈에 담긴 재능을 우리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불어넣어 준다면 우리 학생들은 더 큰 꿈을 키워 글로벌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 미래지향적 인재로 자라날 것이다.

본교와 같은 다양한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소규모 농산어촌의 경우 교육기부 창의적 체험활동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올해 봄에 경기도 일산에서 열렸던 교육기부 박람회에서는 다양한 업체나 단체, 기관, 대학 등이 전문적이고도 체계적인 기부활동들을 선보였다. 이러한 교육기부활동은 본교와 같은 농산어촌에는 주로 대도시 학생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기업, 공공기관, 대학에서의 교육기부 역시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도 본교는 학생들의 꿈을 키우고 생각을 더하는 교육기부 창의적 체험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바벨 위에 꽃핀 나의 꿈!



정 수 용

영운중학교 교사

들어가며

제4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영운중학교 역도부,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3, 은1, 동4를 획득하며 경남 역도의 메카로 거듭난 영운중학교, 이런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영운중학교 역도부를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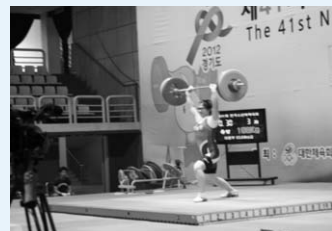


1. 영운중학교 역도부의 시작

영운중학교 역도부는 2000년 3월 1일에 창단하여, 여학생 3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역도부 감독인 저는 2005년 3월 1일자로 부임하여 부족한 역도선수 수급문제에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여자가 무슨 역도를 하느냐?”라는 인식이 강하여 역도를 하려는 여학생들이 적었기 때문에 더욱 고민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뜻과 꿈이 있는 학생들은 물론, 순발력이 뛰어나고 신체적인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 그리고 학업에 흥미가 없고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까지 눈여겨보았다가 선발하여 운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2. 사고뭉치에서 촉망받는 우수 선수로

이런 학생들을 선발하였기에 학교에서는 역도부하면 ‘사고뭉치’, ‘문제아’ 등 부정적인 이미지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심어줄 수 있을까’를 가장 먼저 고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민 끝에 먼저 문제의 역도부 학생들이 학교에서 최고의 모범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인성교육 및 예절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정신 수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정규수업을 하고 오후 운동시간을 엄수하자는 학생들과의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문제아’라고 불리던 학생들이라 학교에서 도망가거나 학교 자체를



오지 않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이 상태로는 더 이상 안되겠다는 생각에 역도부 학부모들과 학생선수, 감독, 코치가 분기별로 1회씩 만남의 시간을 갖기로 하고, 학부모와 자주 연락하며 진심으로 소통하기 시작하니 학생선수들의 학교생활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제 41회 전국 소년 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3개 획득하고 여중부 69kg급 한국 중학생 신기록을 수립한 김승현 학생은 서울에서 태어나 제주에 계시는 할머니 댁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김해에서 미장원을 운영하는 어머니에게 오게 되면서 영운중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지내면서 일반 학생으로는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학업에 집중도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처음 1학년 때 역도부에 호기심으로 들어왔다가 훈련이 힘들어 중도에 포기도 했지만 2학년 때부터 다시 운동을 시작하면서 학부모, 감독, 코치와 진심으로 교감하며 꿈을 향해 집중한 결과 한국 중학생 최고의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제 41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학생 모두 평범한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동메달 2개를 획득한 남중부 85kg급 권대환 학생은 여러 방면에서 문제 행동으로 학교와 부모님 모두 걱정하는 학생이었고, 은메달 1개와 동메달 2개를 획득한 윤가영 학생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자라 학교생활을 하면서 웃는 얼굴 한 번 보여준 적이 없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누구보다도 더 예의 바르고, 밝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자신감과 적극성까지 갖춘 멋진 역도 꿈나무로 자라고 있습니다.

3. 역도부의 꾸준한 발전

2006년부터 인성교육과 체계적인 훈련을 병행하여 제3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처음으로 전국에 영운중학교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였고 이후 매년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2009년 제3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진한나 학생이 여중부 63kg급에서 용상 금메달, 인상과 합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여 영운중학교 역도부 창단 이래 처음으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진한나 학생은 가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심리적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저의 권유로 역도부에 첫발을 들여놓고 난 뒤 꾸준히 노력하여 영운중학교 역도부 역사상 첫 소년체육대회 금메달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제39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남중부 50kg 급에서 김범진학생이 용상 금메달과 합계 동메달을 획득하였으며, 2011년 제4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여중부 69kg급에서 윤아립 학생이 인상 용상 합계에서 동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4. 제4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의 쾌거

2011년 9월에 엄흥기 교장 선생님께서 부임한 이후 역도관을 증축했습니다. 또 휴게실을 둘러보신 후 선수 휴게실에 전기판넬을 깔고, 회벽에는 아늑한 분위기의 색지로 도배를 하고, 샤워 시설 등을 새로 정비하여 운동 후 휴식하기에 더욱 좋은 조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경남교육감기 역도대회에서 처음으로 삼진중을 앞서 종합우승을 하고, 전국소체 경남역도대표선수로 4명이 선발되어 금년에 최상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2012년 4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는 금메달 3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4개를 획득하는 엄청난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여중부 69kg급에 출전한 김승현 학생은 인상(85kg), 용상(108kg), 합계(193kg)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해 3관왕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용상(108kg)과 합계(193kg)부분에서 중학생 한국 신기록 2개를 수립하는 성과를 올렸는데, 역도를 하기 전 85kg에 달하는 몸무게였지만 운동을 통해 15kg 씩이나 감량하는 고통 끝에 최정상의 자리에 오른 것이라 더욱 값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중부 53kg급에 출전한 윤가영 학생은 인상(63kg)에서 동메달, 용상(84kg)에서 은메달, 합계(147kg)에서 동메달을 획득하였고, 남중부 83kg급에 출전한 권대환 학생은 용상(130kg)에서 동메달, 합계(230kg)에서 동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우리 영운중학교의 역도부 창단 이래 최고의 성과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나가며

개인 기록경기인 역도는 자신과의 싸움이 더욱 요구되는 운동입니다. 이러한 역도를 쉬지 않고 꾸준히 하기란 어린 나이의 학생으로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학교에서 ‘문제아’로 불려오던 학생들이 한가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꿈을 가지고 운동하기란 더욱 어려운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렵고 힘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 전국소년체육대회라는 큰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것은 이러한 학생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파이팅! 무중 Dream 5 프로젝트



이 순 자

밀양 무안중학교 교장



01



02



03

‘남극 탐험 도중 실종된 두 탐험대 이야기입니다. 먼저 A팀, 황량한 남극 대륙에 홀로 남았다는 생각에 삶의 끈을 미리 놓아버렸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모두 얼어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구조대와의 거리는 불과 17Km 밖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B팀, 암흑 같은 대륙에서 좌초되어 살아 돌아갈 수 있을지 막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반드시 살 수 있다’는 꿈을 갖고 뭉쳐 용기를 나누었고 가족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1년 7개월 뒤 모두 구조되었습니다.’

새 학년을 여는 첫 조례 시간, 꿈이 있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지만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것과 같다는 교장선생님의 훈화는 학생들 가슴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본교에서는 농어촌 전원학교 차원에서 ‘무중 Dream 5 프로젝트’로 학생들의 꿈 보따리 열기를 시작하였다.

D1. 꿈을 키우는 학력향상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학력향상과 특기적성으로 나누어 월요일과 금요일에 각각 두 시간씩 운영하였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나 자기 주도적 학습을 더 희망하는 학생들 때문에 도서관(정독실)을 개방하였다. 대학생 선생님과 함께 하는 미리내 글방과 전원학교 차원의 저녁 심화반도 실시하였다. 그래도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스스로의 의지가 먼저라는 생각에, 조선일보 맛있는 교육 칼럼니스트 ‘신가혜 선생님’ 초청 전교생대상 학습코칭을 결하였다. 학습코칭 이후 학생들은 수업에 참여하는 태도, 예습복습을 위한 노트 정리 방법을 배운 대로 적용하였다. 이후 미리내 글방과 저녁 심화반 참여 학생들의 성적 분석 결과, 향상 정도가 평균 5% 대로 높아져 있었다.

D2. 꿈을 가꾸는 인성교육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본교의 슬로건은 ‘폭력 뒤편 빨간불 우정 뒤편 초록불’이다. 3월 초 학교폭력예방 선서식을 시작으로 격주마다 대안교실 ‘순복이와 아이들’을 운영하였다. 대상 학생들은 인근의 원예치료학교를 찾아 흙 놀이, 도자기 만들기, 분경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서로의 고민과 갈등을 나누었다. 대안교실의 명칭

01 폭력은 빨간불 우정은 초록불

02 방과후 학교 ‘한국화 시간

03 독서동아리 ‘책마루 활동

은 그들이 엄마처럼 따르는 인성부장의 이름을 붙여 만들었고 그렇게 그들은 ‘가족’이 되어 갔다. 7월 10일 실시한 ‘친구의 날’ 행사에서 UCC와 반가로 우정을 확인하며 학생들은 코끝이 찡해졌다. 학교폭력전수조사 결과도 초기 28%에서 복수 응답을 허용하였음에도 현재 15%로 현저히 낮아졌다.

D3. 꿈을 나르는 봉사활동

본교는 자매 결연시설인 ‘소망요양원’을 찾아 매주 토요일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까닭은 학부모 봉사단체인 샤프론 봉사단과 학생 중심의 프론티어 봉사단 덕분이다. 1, 2세대로 구성된 본교의 봉사단체가 3세대 어르신들을 찾으므로써 자연스럽게 가족 단위의 활동이 되었다. 주된 내용도 말벗되어드리기, 안마해드리기, 풀 뽑기, 목욕봉사 등 거의 가족의 역할로 구성되어 있다. 또, 맛나향 고추축제, 밀양아리랑대축제,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등 우리 지역의 행사에 참여하여 다양한 기량을 뽐내고 아울러 봉사활동도 하며 지역민으로서의 자부심 함양에 노력하고 있다.

D4. 꿈을 도우는 진로탐색

3~4월 자아발견을 위한 각종 심리검사, 학부모 대상 자녀 이해를 돕는 대화법 강의, 전 교사 가정방문을 통한 학부모 상담, 5월 초 전문상담교사 초빙 후 상담실 상시 개방, 7월 중 진로특강 및 진로와의 만남의 날, 방학 중 1박 2일 여정의 진로 캠프 실시, 자기 꿈 관리장 갖기 등 본교의 진로탐색활동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될 예정이다. 그 중 하나만 소개하면 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인 10군을 선정, 직접 초빙하여 만남의 장을 펼쳤다는 것. 7월 18일에는 동아대 이익선 교수님, MBC 방송인 아구할매 김혜란님, 신성그룹 대표 석재민님, 그랜드 위커힐 셰프 이재훈님 등 다양한 직업인이 본교를 찾아 학생들의 꿈 찾기를 도왔다.

D5. 꿈을 펼치는 감성교육

본교의 아침 등교 시간은 방송 음악과 함께 시작된다. 교실로 들어가면 아침 10분 책읽기, 1교시 시작 전 3분 명상으로 아침 활동을 갈무리 한다. 점심시간이 되면 운동장에서 도서실에 야외 학습장에서 세심정(학생 쉼터에 있는 정자)이 살아난다. 또 사제동행 독서동아리 ‘책마루’ 활동, 독도동아리활동을 비롯하여 선배가 후배들을 모아놓고 사물놀이며 배드민턴 탁구 등을 가르치기도 한다. 매주 수요일은 학생회 임원들이 주도하는 학교 정화의 날이고, 주중 방과후 외 토요일방과후활동 프로그램만 따로 7~8개, 참여 학생 수는 70~80여 명으로 최저 60%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언어문화개선 선도학교, e-NIE활용학교, 요가댄스스포츠 등의 평생교육으로 지역민과 함께 하는 학교 등 본교의 감성 깨우기는 날마다 현재진행형이다.



- 04 선생님, 저화가 잘 할게요
- 05 신기해 선생님의 학습코칭
- 06 상반기 방과후활동 작품 전시회

꿈 · 열정! 소통하는 우리



김 은 희

진영여자중학교 교장

01



02



03



1. 들어가며

본교는 읍면 지역의 소도시 소규모 학교다.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 가정이 많고 학생들은 학업성취도가 낮고, 자기 소질 계발이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인프라가 부족하고 다양한 체험 학습시설이 부족해 문화 활동은 좀처럼 접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삶에 대한 흥과 열정, 자신감을 키워주고 미래에 자신의 꿈을 심어 주고, 이끌어 줄 수 있는 교육과정과 다양한 교육활동이 필요하다. 본교의 실정과 여건에 맞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교육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운영해 봄으로써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교사 · 학부모 ·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는 새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여 실천중심의 바른 인성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구현하고자 하였다.

2. 음악활동을 통한 흥과 열정이 함께하는 학교 문화 조성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정신을 풍요롭게 만들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져다 주기 위해 매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신나는 노래부르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5월 전학년 캠프 때 반가 만들기 대회를 개최하여 반가 부르기를 생활화하고 있으며,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과 공동체 정신을 아름다운 음악활동을 통해 구현하고자 김해보훈요양원에서 음악연주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3. 운동의 생활화를 통한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 조성

많은 학생들이 영양상태가 좋아져 체격은 많이 좋아졌으나 체력은 약해지고 비만이 증가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생겨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생들이 스스로 매일 장생보법 걷기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느끼며 즐겁고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하여 체력을 향상 시키며, 방과후학교나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한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심신의 단련과 건강한 학교를 만들고 있다.

01 반가 부르기 대회

02 이웃과 함께하는 연주회 1

03 이웃과 함께하는 연주회 2

4. 독서활동을 통한 건전한 꿈을 가진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는 학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독서지도를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주체적인 독서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고 나아가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자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가. 사제동행 독서 동아리

교사·학생이 함께 선정한 책을 읽고 다양한 독후활동을 전개하고, 주제별 독후논술 및 토론회, 문학탐방, 작가와의 만남 등을 실시하였다.

나. 독서벽신문 만들기 활동

다양한 독서활동을 통해 읽기 수준의 독서활동을 넘어 독서의 내용 및 느낀점을 내면화하고 모둠별로 독서벽 신문 만들기를 통해 상호간의 소통과 토의를 통한 독서내용 교환은 사고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5. 너와 내가 만나 하나 되는 꿈의 한마당 캠프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심신을 단련하여 리더십을 키우며 자신의 잠재능력을 계발시키고, 극기심과 호연지기를 지닌 진취적 기상을 길러 전인적 인격체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교내 천연 잔디 운동장에서 전교생이 학년별로 1박2일 동안 캠프활동을 실시하였다. 부모님과 영상제, 별보기, 부모님과 함께하는 도전골든벨, 장기자랑, 미니체육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교사, 학부모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서로 간의 생각의 격차를 좁히고 이해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6. 끝맺음

경남교육의 특색과제인 ‘노래하는 학교, 운동하는 학교, 책 읽는 학교’를 본교 실정에 맞게 적용한 ‘꿈·열정! 소통하는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스스로 참여하는 민주시민 육성,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함양, 학생 상호 간의 신뢰감 및 존중감 향상, 협동과 단결이라는 중요한 덕목들을 체득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04



05



06



03 스포츠 프로그램

04 독서벽 신문 만들기

05 캠프활동



거울속의 나



정 일 권

김해삼계중학교 행정실장

어느 덧
바람처럼 흘러 가버린
무심한 세월
말없이
거울앞에 다가가서
가슴 졸이며
내 모습을 보네.

까마득한 옛 모습은
숨겨져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모습이 남아 있는지 불려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네.

세월에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변해버린 모습의 나는
어떻게 아름답게 변했는지?
그 속의 나는
나를 잘 대변하고 있는지?
걱정스런 작아진
나의 소박한 마음 모습만
보이네.





화 차



권 정 숙

안의초등학교 5학년 조나경 어머니

화차(火車)는 생전에 악행을 저지른 망자를 태워 지옥으로 실어 나르는 불수레란 뜻이다.
 지금도 극장가에서 이 책을 영화로 해서 상영을 하고 있단다.
 여기선 극장 가기도 좀 거리가 있고 해서 그냥 책으로 읽고 말지 했다.
 단순히 시간 때우기의 책 인줄 알았다.
 얼굴만 내세웠다고 생각했던 유명 여배우가 이 영화에서는 제법 연기를 한다고 그 여배우의 새로운 모습을 봤다니 하는 말들이 많았다.
 사뭇 궁금하기도 했다. 어떤 내용일지.
 이 책의 서두는 총기사고로 휴직중인 형사에게 집안의 조카가 자신의 약혼녀를 찾아달라는 의뢰에서 시작된다.
 약혼자라고만 알고 있던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그녀의 행적이 도무지 나타나질 않아서 그녀의 행방을 찾고자 의뢰를 하게 된 것이다.
 휴직 중이던 혼마에게 의뢰된 일이고 그리고 집안의 일이기에 아주 조심스럽게 탐문을 하게 된다.
 지금 살았던 집과 사무실, 그리고 예전의 사무실을 찾아가 보았지만 별 소득을 얻지 못하다가 아주 우연히 사라진 여자와 얼굴이 일치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
 아주 어린 시절의 친구들을 만나면서 세키네 쇼코라는 여자는 다른 인물임을 알게 된다. 여러 가지 상황들과 탐문 끝에 세키네 쇼코가 신조 교코라는 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신조 교코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엄청난 부채로 쫓기는 삶을 살고 있었던 여자이다. 그런 그녀가 빚쟁이들의 손에서 벗어나고파 낸 묘책이 자신이 다른 사람의 삶을 살려고 세키네 쇼코의 인생을 훔치게 된다.

지금 우리 현실에서 겪고 있는 현실의 이야기를 조금은 과장을 섞어 놓았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고리대금업자들에게 신체를 담보로 한다. 빚을 갚지 못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동반 자살을 한다며 신문에서도 이들에 한 번 꼴은 봤던 것 같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돈에 의해 우리의 인생이 정해져 버리는 그런 현실이다.

여기의 이야기가 단지 소설 속에만 나오는 이야기라고 누가 단정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이 책의 여자처럼 그렇게 빚을 많이 지고도 흥청망청 살았던 것도 아니다.

단지 생활비가 필요해서 카드로 여기서 대출 받고 또 저기서 대출 받고 갚지 못할 땐 또 아무 거리낌 없이 카드를 만들고 그러고 또 돌려막기를 하고, 우리 사회가 너무도 무자비하게 소비를 조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TV나 잡지를 보면 무엇이든지 좋은 것 예쁜 것 꼭 그것을 안사면 죽을 것 같이 소비자를 흥분 시킨다. 매일 매일을 그런 소비의 유혹에 사는 것이다.

그러다가 그 돈을 갚지 못해 이렇게 나락으로 빠져 버리는 그런 세상이다.

물론 자본주의의 국가니까 당연하대라고 하지만 국민이 없는 국가가 존재할 수 없듯이 조금씩은 자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건전한 소비문화를 국가가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이 책과 같은 일이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수학여행을 다녀와서



이 병 희

김해 한얼중학교 2학년 1반

드디어, 나도 수학여행을 간다. 다른 친구들은 아마 ‘수학 여행’이라는 말을 두 번 접해 보는 거겠지만 난, 초등학교 때부터 모든 학교 행사에 참석을 한 적이 없는 터라 남달리 ‘소풍’이나 ‘수학여행’은 나에게 큰 산으로 느껴짐과 동시에 큰 갈망으로 존재하는 의미이다. 그나마 중학교 올라와서 1학년 소풍과 함께 지금 이 여행도 갈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긴장이 되고 가슴이 벅차 오른다. 사실 시험 전까지도 계속 몸이 좋지 않아 포기하고 있었는데 정말 꿈만 같다. 전날 잠을 거의 못 자고 새벽 일찍 눈을 떠 여행 가방을 꼼꼼히 확인 하고 친구들과 함께 여행지로 출발하는 차에 나의 몸을 실었다.

남성 휴게소를 지나 두 번의 휴게소를 더 거쳐 시끌벅적 수다를 떨다 보니 차멀미 때문에 뺨겨온 검은 비닐 종이는 한 쪽 가방 속에 과자 먹은 쓰레기 봉투로 뽁뽁 숨겨져 있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서울에 도착! 첫 발을 디딘 곳은 KBS방송국이다. 난, 거기서 나만의 일기에 보를 하는 아나운서가 되어 보기도 하고 기념사진도 찍었다. 다시 차를 타고 간 곳은 ‘국회의사당’이다. 말 그대로 국회의원들이 국정을 논의하는 곳인데 난 뉴스에서 의원들이 말과 몸싸움을 하던 장면이 떠올라 국회의사당의 웅장함과 신비스러움이 금방 사라졌다. 나라 일을 보시느라 수고가 많으시지만 좀 더 아름다운 면을 우리에게 보여줬음 하는 마음에 자리를 떠났다. 작은 댁에 들 때면 가까운 세종 문화 회관과 광화문 광장을 가면서 경복궁을 자주 가곤 했는데 이번 여행에서 바라보는 경복궁의 모습은 또 다른 것 같다. 조선 정궁의 모습을 대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란 점에 뿌듯한 반면 안타깝게도 승례문 방화 사건이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가 마음이 찡했다. 차에 올라 숙소로 향해 가는 중 다시 한 번 그런 국가적인 망신은 없어야 될것이라 생각해 보았다.

숙소에 도착해서 모두 세면 도구를 챙겨 오지 않아 한바탕 난리가 났으나, 그것도 잠시뿐! 게임도 하고 usb로 영화도 보며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다시 한 번 내가 여행을 와있다는 실감에 몸을 뒤적이며 잠을 청해 본다. 새벽에 잠깐 잠이 들었다가 눈을 뜨니 5시 30분, 대충 씻고 아침을 먹은 후 옛 유물들이 보존 되어 있는 역사관을 거쳐 전쟁 기념 박물관을

갔다. 거기엔 호국 인물들과 시대별 전쟁 관련 유물들이 소장되어 있었는데, 난 북한의 남침 배경과 전쟁의 경과 등 전쟁의 실상이 전시 되어있는 한국 전쟁실이 기억에 남는다. 같은 동족끼리의 전쟁에 대한 아픔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발길을 돌아서서 내가 가장 기다리던 에버랜드에 왔다. 내가 어지럼증이 있기 전까지는 가족 여행도 많이 갔었는데, 심지어 놀이 동산을 좋아하는 동생의 모습마저도 기억에 가물 거린다. 그런 내가 여기와 있으니 내심 동생에게 미안하기도 한 것이 기쁨과 동시에 미안한 마음이 교차한다. 아침부터 날씨가 별로 좋지 않더니 비가 조금 조금씩! 기어이 입장료 끊을 때에는 많은 비가 내려 나의 부푼 기대가 무너지는 것 같았다. 또, 친구들과 뿔뿔이 흩어져 우산도 없이 우린 놀이공원에 놀러온 미아 아닌 미아가 되어 버렸다. 하지만, 오후 3시 쯤 비가 짝 그치고 우린 다시 모여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복작복작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학교 결석도 잦고, 내 어지럼증을 아는 친구들은 놀이 기구에 너무 적극적으로 집착한 나에게 약간 의외라는듯 걱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곤 했다. 하지만, 난 여기까지 온 이상 포기할 수 없었고, 놀이기구를 하나하나씩 타며 즐기고 있었다. 처음부터 너무 강한 롤러 코스터를 타서인지 점점 몸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표시내지 않고 꿋꿋이 다 탔다. 하지만 역시 무리였다. 나 때문에 아이들이 불편해 할 까 봐 화장실에 가서 한참을 속을 진정시키고 나왔다. 다행히 눈치를 채지 않아 일단 성공한 마음에 페스티벌 쇼를 보러 발걸음을 옮겼다. 반짝거리는 야경 조명 밑에 쇼를 하는 단원들의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다. 그렇게 자리를 떠나 숙소 도착한 시간은 새벽 1시, 피곤하긴 했지만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았고 알콩달콩 얘기를 하다가 뒤척뒤척 하다 잠이 들었다. 아침에 숙소와 짐정리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천안 독립기념관을 거쳐 마지막 코스인 과학센터에 가서 미래의 차도 보고 멸종 동물인 공룡을 구경했다. 모든 여행 일정이 끝난 뒤 버스를 타고 시원 섭섭함을 뒤로한 채 버스에서 내려 친구들과 헤어져 케리어를 끌며 집으로 향한 나의 발걸음은 무척 가벼웠다. 아마, 그건 내가 여행을 출발할 때 가진 부푼 설렘임과 지금은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가는 나의 기특함과 뿌듯함이 교차한 마음일 것이다. 동생에게 줄 기념품을 호주머니에서 꺼내어 만지작거리다 어느새 집 앞에 다다랐다. 초인종 소리와 함께 선물을 기다리며 환하게 웃고 있는 동생을 보니 미안한 마음이 조금 가셨다. 또, 1학년 수련회 갔다 와서는 컨디션이 별로였는데 이번 여행은 후유증도 없이 컨디션이 괜찮았다. 아마, 이 정도의 컨디션이라면 당장 누나가 있는 캐나다이라도 갈수 있을 것 같다. 너무 큰 욕심이겠지. 아무튼 이번 여행은 정말 나에게겐 너무 뜻깊은 여행이었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이런 의미있는 시간과 모든 추억을 갖게 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장시간 운전을 하시면서 우리들을 안전하게 안내해 주신 기사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다시 찾아올 나의 여행을 기다리며 이만 잠자리에 든다. 친구들아! 잘재!



「마당을 나온 암탉」을 읽고



권 성 희

밀양 백산초등학교 교사

“마당에 나가고 싶어”

좁디좁은 양계장의 한구석에 있던 암탉 한 마리가 소망을 가진다. 하지만 이 소망은 자연과 인간이, 욕망과 소망이 부딪치며 어려움을 겪는다. 양계장에 나오는 암탉들은 반자연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좁은 철장 안에서 인간이 주는 먹이를 먹기만 한다. 이 암탉들이 낳는 알은 부화할 수 없다. 자연의 모습이 비틀어지고 일그러져 있다. 인간의 욕망에 갇혀서 생명을 가진 기계처럼 살아가는 암탉들, 하지만 한 마리의 암탉은 자신에게 스스로 이름을 지어준다. ‘잎싹’이라는 이름은 인간이 비틀어대는 자연을 회복하는 상징처럼 느껴진다. 이 잎싹은 좁디좁은 양계장의 한 부분이 아닌 마당을 소망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알을 품고 부화하기를 소망한다.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의 소망은 인간의 욕망으로 좌절당한다. 잎싹은 죽음의 구덩이에서 벗어나 그토록 원하던 마당으로 돌아오지만 마당의 구성원들에게 배척당한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마당, 그 마당은 또 다른 형태의 양계장이며 욕망의 공간이다. 그 속의 구성원들은 자연의 일부분이 되기를 소망하는 잎싹을 받아들이지도 이해하지도 못한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잎싹은 마당을 나온다. 그리고 자연 속으로 들어간다. 이 후 잎싹은 우연과 비극을 통해 알을 품게 된다.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다. 잎싹은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양계장의 한 마리 암탉이었던 잎싹이 이렇게 강해질 수 있는건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건 욕망과 소망의 차이점이 아닐까? 욕망과 소망은 사전적 어원에서 ‘무엇을 가지거나 하고 싶은 것을 간절히 바랍’이라는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두 단어는 다르다. 이외수 선생님은 ‘감성사전’에서 자신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욕망이라 하고, 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대로 소망은 타인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소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했다. 잎싹이 가지고 있던 마당으로

나가고 싶은 소망과 알을 품고 싶은 소망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이익과 입밖을 생 명체가 아닌 돈벌이로 보는 욕심과는 다른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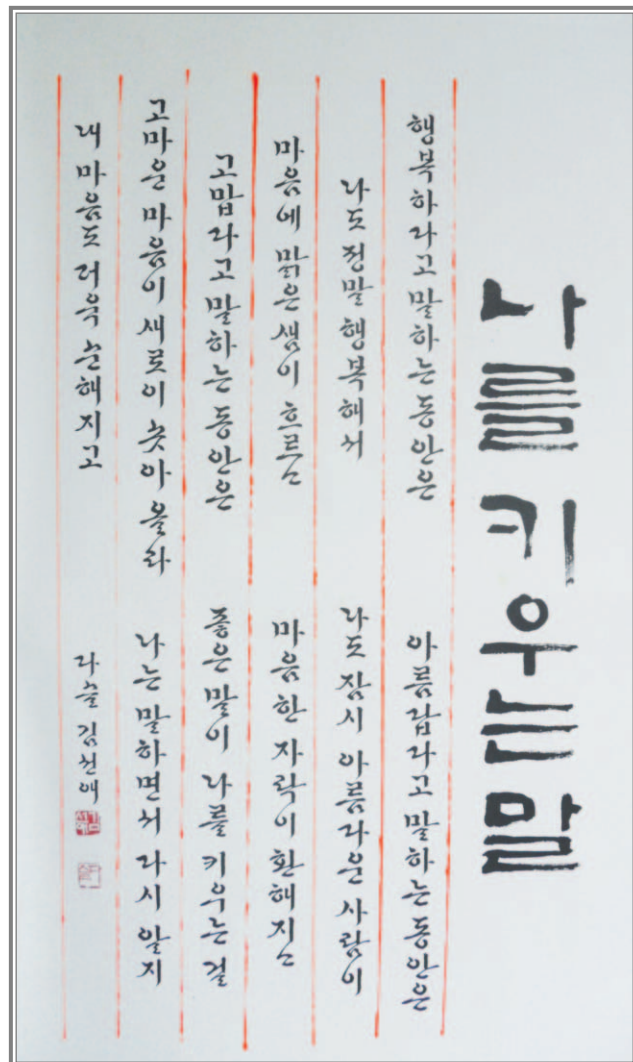
이런 갈등 관계는 잎싹이 초록이를 부화시키고 같이 살게 되면서 자연과 자연의 대립 모습 으로 변화된다. 알을 품어 부화시키고 엄마가 된 잎싹은 그토록 원하던 자연의 일부분이 된 다. 그러나 자연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필연적으로 겪어야 되는 생존의 법칙이 잎싹과 초록이 를 기다리고 있었다. 족제비로 대표되는 먹이사슬이라는 냉혹한 자연의 법칙은 호시탐탐 잎 싹과 초록이를 노린다. 이 냉정한 얼굴을 가진 자연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잎싹이 가진 헌 신적인 모성애였다. 새끼를 가진 어미가 가지게 되는 따뜻하고 포근한 모성애는 자연의 또 다 른 얼굴이다. 먹이사슬과 모성애, 이 두 모습의 자연은 끊임없이 부딪쳤다.

이야기는 잎싹이 초록이를 청둥오리 무리로 떠나보내고 스스로 족제비의 먹이가 되며 끝이 난다. 잎싹은 알을 품고 부화시켜서 엄마가 되는 자연성의 회복이라는 개인적인 소망을 가지 고 있었고 그 소망을 모성애로 지켜내었다. 하지만 잎싹은 여전히 족제비와의 갈등관계와 초 록이와 이별을 피하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 잎싹은 족제비를 악으로 인식하고 있었 다. 이런 인식은 족제비의 새끼를 발견함으로써 변화를 일으킨다. 족제비도 자기와 같은 엄마 라는 것을 안 것이다. 족제비는 선도 악도 아닌 커다란 자연의 일부분일 뿐이었다는 것을 깨 달은 순간 대립이 사라졌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자기 희생이라는 좀 더 높은 단계로 승화된 다. 이런 깨달음의 모습은 초록이를 무리로 떠나보내는 모습에서도 보인다. 애지중지하게 키 우고 아끼던 초록이를 철새라는 청둥오리의 본성에 따르도록 하는 모습은 개인의 욕심을 뛰어 넘는 모습을 보여준다. 자연의 법칙을 순응하며 받아들이는 모습은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해준다.

불가능해 보이는 소망을 가졌던 양계장의 한 마리 입밖이야기는 나에게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고 말해준다. 간절한 소망을 가지라고 말해준다. 그리고 그 소망을 위해 뚝뚝뚝 걸어가 라고 말하고 있다. '나에게 있어 마당을 무엇일까, 그리고 그 마당으로 나갈 용기가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되묻는 나에게 이 문장 하나를 선물해 주고 싶다.

‘자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¹⁾

1) 파울로 코엘료 “연금술사” 중



김 선 애

- 현) 유목초등학교 교사
-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및 입선 2회
- 경상남도 미술대전 초대작가 및 심사
- mbc 여성취향대회 초대작가 및 심사
- 신시임당 취향대회 차하
- 교원 예능대회 1등급 및 심사

이제 그만! 학교폭력

학교폭력의 징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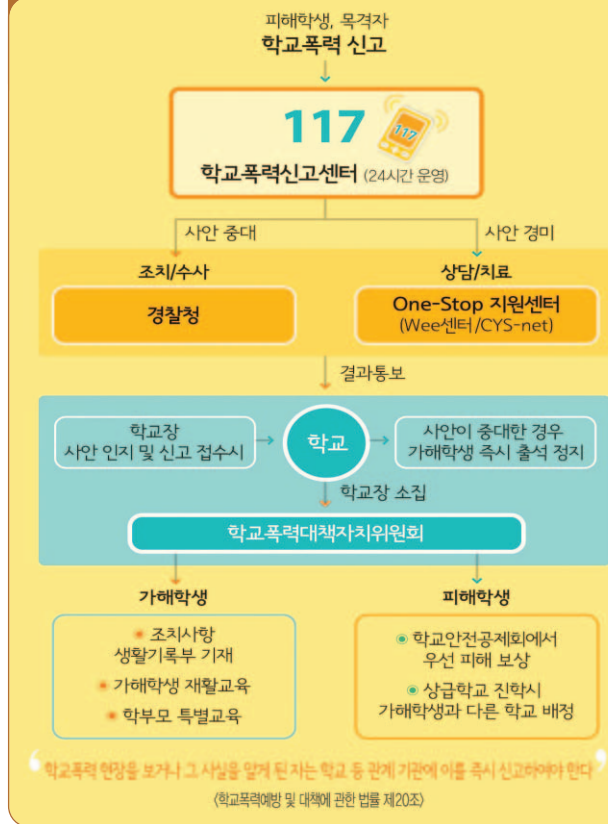
피해학생의 징후

- 몸이 아프다며 학교 가기를 싫어하거나 지각이나 조퇴가 잦아진다.
- 용돈을 요구하는 횟수가 늘어나거나 말없이 돈을 가져간다.
- 멍자국이 있어 물어보면 그냥 다쳤다며 자세한 이야기를 피한다.
- 운동화, 휴대폰, MP3, 옷 등이 자주 망가지거나 잃어버렸다고 한다.
- 친구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르며, 다른 학생들의 눈치를 많이 본다.
- SNS, 교과서, 노트 등에 욕설, 폭언, 협박이나 "죽고 싶다" 등의 낙서가 있다.
- 웃음이 없어지고 풀이 죽어서 맥없이 있거나 방에 틀어 박혀 나오려 하지 않는다.
- 자면서 식은땀을 흘리며 잠꼬대를 한다.
- 이유 없이 갑자기 성적이 떨어진다.
- 어머니, 동생 등 만만한 대상에게 폭력을 쓰거나 공격적으로 변한다.

가해학생의 징후

- 사주지 않은 물건을 가지고 있어 물어보면 친구에게 받았다고 한다.
- 갑자기 돈 씹씀이가 커졌다.
- 다른 학생을 종종 때리거나, 동물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인다.
- 부모에게 이유 없이 화를 내며, 비밀이 많고 대화를 잘 하지 않는다.
- 귀가 시간이 늦어지거나 외출이 잦아진다.
- 자신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이유와 핑계가 많고, 과도하게 자존심이 강하다.
- 성미가 급하고, 충동적이며 공격적이다.
- 작은 칼 등 흉기를 소지하고 다닌다.
- 등하교 시 책가방을 들어주는 친구나 후배가 있다.
- 손이나 팔 등에 종종 붕대를 감고 다니거나 문신 등이 있다.

학교폭력처리 절차



학교폭력 대처 방법

피해학생 부모의 경우

- **아이를 탓하지 마세요.**
 - 학교폭력은 당신 자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 피해사실을 축소, 은폐하지 마세요.
- **힘든 내색하지 마세요.**
 - 부모가 절망하면 아이는 더 움츠러듭니다.
- **보복하지 마세요.**
 - 보복으로 아이의 상처를 치료할 순 없습니다.
- **아이를 응원해주세요**
 - '절대 네가 잘못된 게 아니야' 라며 지지해주세요.
- **도움을 요청하세요**
 - 먼저,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 사실을 알려주세요.
- **증거를 확보하세요**
 - 예) 문자메세지, 이메일, 음성녹음, 상해진단서 등
-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세요.**
 - 대화와 관심, 자녀의 생활에 즐거운 변화를 줍니다.

가해학생 부모의 경우

- **부인하지 마세요.**
 - 가해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또 다른 가해 행위입니다.
- **피해학생을 탓하지 마세요.**
 - 피해학생에게서 폭력의 원인을 찾지 마세요.
- **정당화하지 마세요.**
 - 애들은 싸우면서 크다며 폭력을 정당화하지 마세요.
- **회피하지 마세요.**
 - 불안, 걱정과 두려움으로 책임을 회피할 순 없습니다.
- **가해사실을 확인하세요.**
 - 아이와 친구, 교사에게 정확한 경위를 확인합니다.
- **잘못을 인정하세요.**
 - 아이의 잘못과 부모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 피해학생에게 아이와 함께 사과하고 회복을 지원합니다.
- **아이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가지세요.**
 - 화해, 재발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세요.